

〈20~30% 이상 상품〉

은행·보험사, 원금 손실 '고위험 사모펀드' 못판다

금융위·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 최소 투자금액 1억 → 3억 상향... 65세 이상은 판매 제한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30% 이상인 '고위험 사모펀드'를 팔 수 없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고령 투자자 요건도 70세에서 65세로 강화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위험 금융상품 개념이 도입된다. 파생상품 등 투자자들이 가치평가를 어렵게 느끼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된다. 구조화 상품이나 신용 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기타 파생형 상

은행권,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신탁	공모펀드
	판매 금지	투자자 보호 강화
그 외 금융 투자상품	판매 가능	판매 가능

*출처: 금융위

품(CDS) 등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앞으로 이런 상품들을 판매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만 팔아야 한다. 다만 재간접 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판매 가능하다.

헤지펀드 문턱도 높아진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현재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령 투자자 요건도 70세에서 만 65세로 강화된다. 약 237만 명이 규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판매사는 숙려 기간 내에 투자자가 별도로 청약 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판매 절차도 꼼꼼해진다. 상품에 가입할 때는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알려줘야 한다.

유영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2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저금리·저물가·저성장〉

파월 "세계경제, 3低 '뉴노멀시대' 진입"

"경기침체시 중앙은행 역할 못해" 트럼프 '마이너스 금리' 압박 일축



감축이 더욱 시급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현 통화정책 기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경제에 대해 들어오는 최신 정보가 우리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당분간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이런 전망에 대해 유의해야 할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사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세계 경제가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펼치면서 기준금리 동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우리는 저금리와 저물가, 저성장의 뉴노멀에 있다"며 향후 새로운 경기침체가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이 움직일 여지가 없음을 우려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리セッション(경기침체)이 일어나면 연준은 일반적으로 금리를 평균 5%포인트 인하했다"며 "그러나 저금리와 저물가,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상황에서 연준은 그런 여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은 이에(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이 벽에 부딪으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미국의 부채는 경제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채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 파급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노동시장과 물가 동향에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며 "침체한 주택시장도 금리 인하로 반등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준을 다시 공격하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파월 의장은 "매우 낮거나 마이너스인 금리는 현재 미국 상황에서는 확실히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는 연준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14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경제 전망을 주제로 증언할 예정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수고했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이 교사장 문을 나서며 환한 표정으로 가족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의 진화' 적금도 판다

택배·패딩 판매·배터리 충전 이어 CU, 대구銀과 제휴 적금 첫 출시 GS25 작년 ATM거래액 10兆 넘어

편의점이 무한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택배 대행 서비스에서 직접 택배까지 진출하더니 고급 에스프레소 기기를 도입해 커피 전문점을 넘보고 있다. 최근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확대해 점포 다이얼트에 나선 시중은행의 빈자리를 채우는 한편, 적금까지 판매하며 영역 파고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멤버십 어플 '포켓CU'에서 30일까지 DBG대구은행의 소액 적금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DBG대구은행의 '내가 만든 보너스적금'으로 최고 금리가 연 2.7%(변

동 가능)다. 포켓 CU에서 DGB대구은행 상품 가입 페이지로 연결돼 입출금 계좌 개설부터 적금 가입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번 CU와 DGB대구은행의 협업은 7월 양사가 맺은 MOU(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내 편의점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편의점들은 금융 업무를 추가하는 추세다. 입금만 가능한 CD기를 줄이고, 입출금 및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ATM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GS25는 2017년 2월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총 7개 은행과 수수료 0원 제휴를 맺고 본격적으로 은행 업무에 나섰다. 이 결과 지난해 ATM을 통한 거래금액은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달 초에는 삼성증권과 네이버페이 등 투자 통장 제휴 상품 광고를 자사 PB(자체상품) 용기면에 입힌

'돈벌라면'을 출시하며 증권사와의 협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전국 4만여 개 점포가 있는 편의점은 영역 파괴 실험을 통해 플랫폼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택배 서비스다. GS25는 택배 발송 대행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3월 기준 택배비보다 56%가량 저렴한 1600원짜리 '반값택배'를 론칭했다. 그 런가 하면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업계 최초로 '패딩조끼'를 판매하며 의류 판매점으로서의 가능성도 엿봤다. 커피전문점이나 식당으로의 변신도 눈에 띈다.

최근에는 모바일리 플랫폼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CU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와 손잡고 대학가, 원룸촌 등에 위치한 점포를 중심으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GS25는 9월부터 '고고씽'과 손잡고 전통 키포드 배터리 충전 및 주차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토·일요일 신문 쉽다

2019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 페스티벌

전경련 그랜드볼룸 11월 19일 오후 2시

경제를 선도하는 신문 이투데이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19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11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19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 페스티벌'에서는 각 기업이 올해 진행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공적과 제출된 영상을 평가해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비롯,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행정안전부장관상·보건복지부장관상·고용노동부장관상·금융위원장상 등을 수여합니다.

올해 행사는 기업과 NGO, 사회공헌단체의 출품 동영상 및 공적조서가 총 180편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폐자의 가족스트로 가방을 제작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온 최이현 모어댄 대표이사의 특별 강연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 합창단 '레인보우'의 축하공연도 펼쳐집니다.

행사가 한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논의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11월 19일(화) 오후 2시~5시 30분
- 장 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랜드볼룸
- 주 최 : 이투데이 미디어·산업통상자원부
- 후 원 :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 문 의 : 이투데이 사무국 (02) 799-2683



조원태號 6개월... 젊어진 한진 '비상의 날개' 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5월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지 반년이 지났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그동안 대내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젊은 리더십으로 격변의 시기에 놓인 한진그룹을 비상시킬 준비된 경영자라는 인상을 심어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14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6월 '항공업계 유엔 총회'로 불리는 제75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 총회에서 그룹 회장으로 첫 공식석상에 나선 조 회장은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받으며 무난하게 첫 스타트를 끊었다.

조 회장은 총회에서 의장으로 추대된 데 이어 IATA 최고 정책 심의 및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BOG) 위원에 선출되며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IATA 연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짧은 기간에 대한항공의 재무구조 개선 의지도 인정받았다. 대한항공은 9월 30일 1800억 원 규모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를 발행해 모두 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IATA 연차 총회 성공적 마무리 3남매 상속건도 분쟁없이 매듭

1800억 규모 영구채 소화 성공 재무 개선 약속 지키며 신뢰 높여 업계 유일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영구채는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채권으로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게다가 영구채를 발행해 모두 판매할 경우 재무구조가 개선됨은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감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앞서 조 회장이 올 초 '대한항공 중장기 비전 및 경영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재무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또 조 회장은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의 사



기를 북돋으며 젊은 총수로서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복장 자율화, 정시퇴근 등을 독려하며 '일하기 좋은'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9월부터 운항·객실 승무원과 접객 서비스 직원 등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는 직원을 제외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장 전면 자율화'를 도입했다. 4월에는 여름철만 시행하던 노타이 근무를 '연중 노타이 근무'로 확대하기도 했다.

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 자유롭게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오후 5시 30분 정시 퇴근 안내방송,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PC에 표시하는 시스템도 도입해 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달부터는 자기 계발, 재충전 등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단기 희망 휴직 제도'도 마련했다. 근속 만 2년 이상의 대한항공 직원들은 최소 2주부터 최대 3개월까지 단기 휴직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2700억 원대 규모의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17.84%) 상속세를 신고하며 경영권에 걸

림들이 됐던 상속 문제까지 마무리 지었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법정 비율대로 각각 1.5대 1대 1대 1대의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았다.

오너 일가는 45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먼저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5년간 6번에 걸쳐 나눠 낼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당초 우려와 달리 3남매가 상속 문제를 분쟁 없이 매듭지음에 따라 조 회장의 경영 행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의 환경으로 인해 실적이 부진하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만큼 그동안 보여준 젊은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3분기에 영업이익 1179억원을 냈지만 환율요인 등으로 211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주요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3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신라호텔〉 〈광주요그룹〉

한식당 '라연'·'가온' 4년 연속 미쉐린 ★★★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0 발간 2스타 2곳·1스타 7곳 신규 선정 공정성 논란에 "증거없다" 해명

서울신라호텔의 '라연'과 광주요그룹의 '가온'이 4년 연속 미쉐린(미슐랭) '3스타'를 획득했다. 더불어 2곳의 2스타 레스토랑과 7곳의 1스타 레스토랑이 새로 선정됐다. 미쉐린은 이날 광진구 비스타워커히서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0' 발간 행사를 열어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한식당 라연과 가온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판이 시작된 2016년부터 최고 등급의 3

스타를 받게 됐다. 3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해 맛을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에 주어진다.

'요리가 훌륭해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2스타 레스토랑엔 '모수'와 '임프레션'이 선정됐다. 지난해 1스타를 받았던 모수는 안성재 셰프가 제철 재료로 선보이는 다양한 요리를 인정받았다. 임프레션은 뉴욕의 다양한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을 경험한 서현민 셰프의 뚜렷한 개성이 묻어나는 현대적 요리를 선보이며 올해 2스타 레스토랑 대열에 바로 진입했다. 이로써 총 7곳의 2스타 레스토랑이 이번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0에 이름을 올렸다.

'요리가 훌륭한 레스토랑'인 1스타 레스토랑에는 7곳이 합류했다. 이 중 새롭게

선정된 '오프레'(이지원 셰프), '보트르메종'(박민재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프레데릭 에리에 셰프)는 프랑스 요리를 다 시 주목받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승환 셰프의 '떼레노'는 직접 가꾸는 채소와 허브를 바탕으로 좋은 재료의 맛을 살린 섬세한 스페니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모미'의 장진모 셰프는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한식 요리를 추구한다. '에빗'은 직접 채취한 한국의 다양한 재료로 요리를 재창조하는 호주의 조셉 리저우드 셰프의 역량이 돋보이는 곳이다.

전통 한식 문화 연구소이자 레스토랑인 '온지음'의 조은희 셰프는 식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한 전통한식을 재현해 '뽕'의 노영희 셰프, '한식공간'의 조희숙 셰프와



14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0' 발간회에서 3스타를 받은 가온의 김병진(맨 오른쪽) 셰프와 라연의 김성일 셰프가 그웬달 블레네(가운데) 미쉐린 가이드 인터내셔널 디렉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여성 셰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웬달 블레네 미쉐린 가이드 인터내셔널 디렉터는 "평가위원들은 보석 같은 맛의 레스토랑들을 찾아 서울 거리 구석구석을 다니다, 해가 갈수록 서울의 레스토랑들이 제 공하는 퀄리티 높은 요리들을 발견하며 보

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서 "혁신적 미식 경험을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레스토랑 등 새로운 요리 스타일들을 찾는 즐거움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블레네 디렉터는 미쉐린 가이드 공정성 논란에 대해 "내사 결과 증거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소희 기자 ksh@

가스보일러

겨울철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꼼꼼한 안전점검으로 세심하게 지켜주세요

아나운서 배지현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포인트

보일러 배기통 이탈 확인
배기통 연결부가 빠져 있으면 배기가스가 새어나와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 배기통 찌그러짐 확인
배기통이 찌그러지거나 막히면 과열, 소음, 배기불량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보일러는 1년에 1회 이상 가스공급자나 보일러제조사로부터 꼭!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겨울철 캠핑시 텐트 안에서 가스난로 등 가스용품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DLF發 레드카드’ 꺼낸 금융당국... 은행장도 사정권

금감원 ‘패키지 제재’ 제시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손실을 끼친 은행들에 대한 이른바 ‘패키지 제재’ 카드를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의 영입 압박 정황이 드러나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영진을 제재하는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감사결과(CEO)상응하는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 여하와 관련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CEO 포함 경영진을 제재하는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DLF 책임을 두고 기관 제재와 함께 CEO 제재 가능성도 열어 둔 것이다.

은 위원장은 “(DLF 조사 결과)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행과 KEB하나은행은 DLF 판매 과정에서 내부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판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DLF 전수조사 자료를 고의

“불완전판매 처벌 모범사례 만들 것 압박 정황 드러나면 CEO도 징계”
내달 금감원 분조위서 제재 판가를

로 삭제하고 금융감독원이 발견하기 전까지 은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은행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CEO 제재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중 조치 대상에 금융기관장이 포함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해임 권고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도 “잘 들여다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종합검사를 토대로 기관 제재는 물론, 최고경영자(CEO) 징계를 두고 문책경고에서부터 해임권고까지 폭넓게 고민하겠다는 뜻이다.

CEO제재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제 연계 DLF가 처음으로 수익을 내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일부 상품이 원금을 회복한 것에 대해 다행이면서도 추후 있을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도 금융사 CEO와 선긋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5일 열리는 ‘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

우리·KEB하나은행 DLF 현황 (단위: 억 원, %)

	총 판매액(A)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손실 확정)		향후 만기도래(현 금리수준 유지 가정)			총 손실액(B+C)	총 손실률(B+C)/A	
		금액	손실액(B)	손실률	금액	손실액(C)			손실률
독일 국제	1255	850	-531	-62.5	405	-10	-2.5	-541	-43.2
영·미 CMS	6695	1229	-564	-45.9	5465	-772	-14.1	-1336	-20
합계	7950	2080	-1095	-52.7	5870	-782	-13.3	-1877	-23.6

DLF 사태 금감원 검사·분쟁조정 진행 현황

검사	현장검사 마무리하고 사실관계 확정 중
분쟁조정	- 8일까지 총 268건 접수 - 손실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 대상으로 내달 중 분조위 열고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및 배상비율 결정 - 나머지 건은 분조위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 권고

※ 출처: 금융감독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중 은행장 등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는 부르지 않기로 했다. DLF 사태 관련 재발방지 대책 시행을 공식화하는 자리에 은행장들을 제외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은 위원장이 사모펀드·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대형 금융 소비자 보호 이슈가 불거

지자 금융사 CEO와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취임 초기 금융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 자칫 물릴 수 있는 데다 제재를 하는 입장에서 CEO와의 잦은 스킨십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월 금감원 분조위가 열려봐야 은행장들 제재 여부도 판가

를 내겠지만 사태가 워낙 큰 만큼 기관제재와 CEO제재를 포함한 패키지 제재안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며 “조사는 전적으로 금감원이 맡고 있지만, 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은행 책임론’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쫓개 팔기로 공모규제 회피... ‘무늬만 사모’ 원천 차단할 것”

자산·수익구조 유사편 ‘공모’ 간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 대책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DLF 불완전판매 여부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은 다음 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DLF 사태 대책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사모펀드를) 유사한 펀드로 쫓개 판매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회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은행 책임론을 언급했다. 그는 “고위험상품이 원금 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투자자 보호 취약점과 상품 설계와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개선 방안으로 공모규제 회피 사례 발생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공모상품이 사모 형식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기초자산과 수익구조가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에 대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개념을 도입해 규율할 것”이라며 “핵심 설명서 교부와 녹취, 숙려제도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은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소비자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고난도 상품이라도 공모펀드에 대한 은행 판매는 지속 허용하되, 설명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은 위원장은 은행 최고경영자의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소투자금액 기준 ‘3억 원’ 인상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 기능 모두를 만족하는 ‘최소 공배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정확히 평가와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 고하와 관련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최소투자기준을) 1억 원으로 낮추고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일반인 투자를 못 하게 막느냐 고민했다”며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릴 때는 여러 의견을 듣고 이 정도 하면 저지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 안정성과 사모펀드 고유 기능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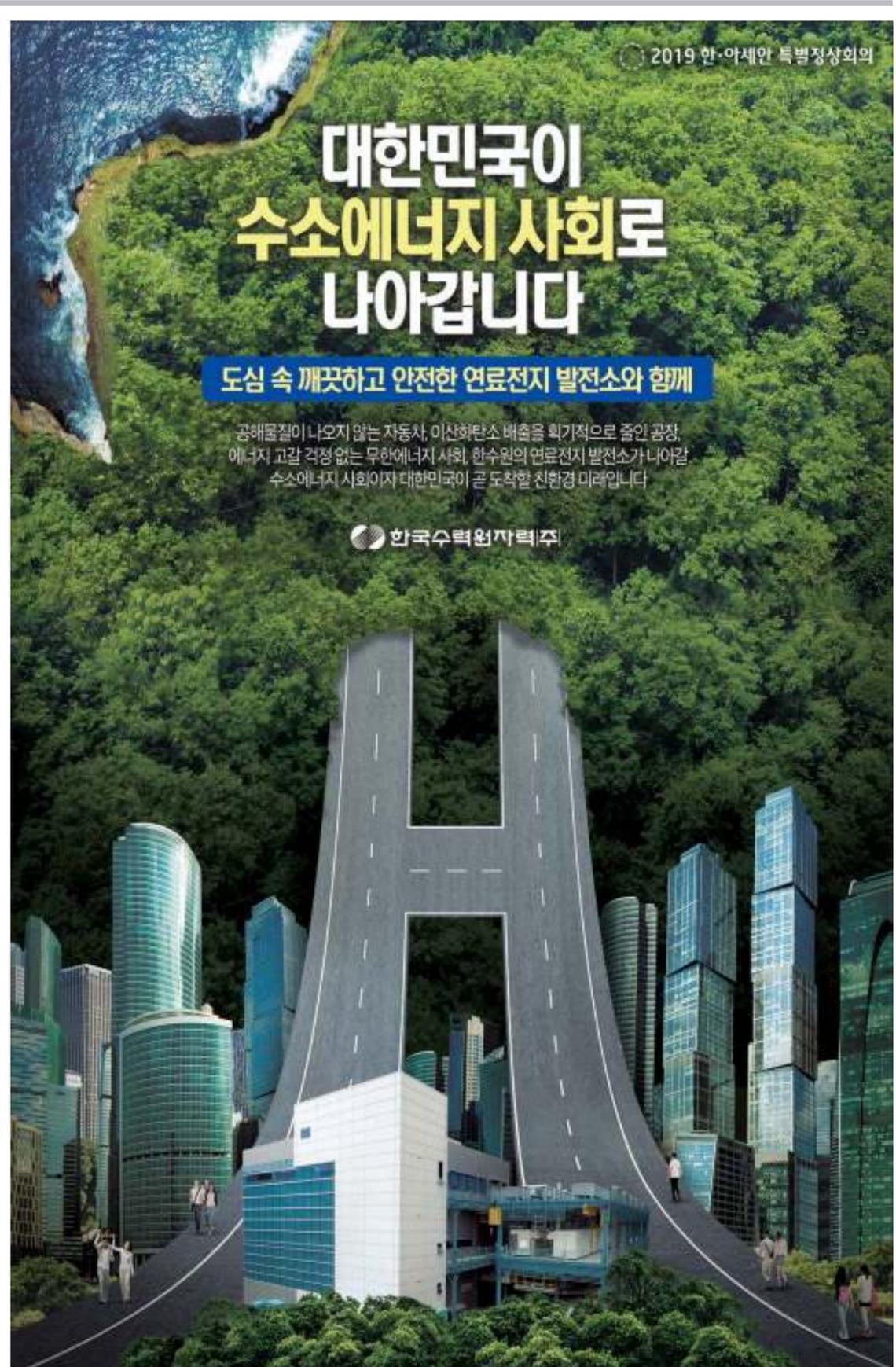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한민국이 수소에너지 사회로 나아갑니다

도심 속 깨끗하고 안전한 연료전지 발전소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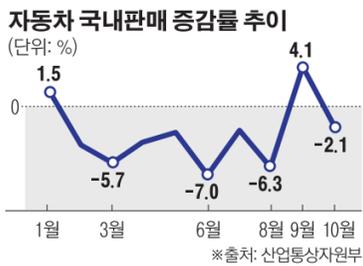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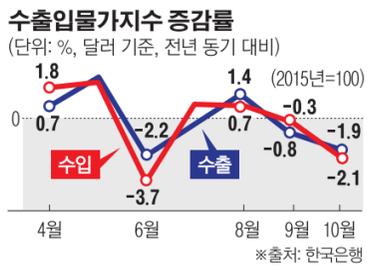
공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공장, 에너지 고갈 걱정 없는 무한에너지 사회. 한수원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나아갈 수소에너지 사회이자 대한민국이 곧 도착할 친환경 미래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 경제 간판이 흔들린다...반도체·車 부진 지속

D램 수출물가 전년동기비 반토막
수출입물가 3년 1개월 만에 최저
車 생산·수출·내수 트리플 감소
금융위기 후 10년 만에 최대 부진



한국 경제의 주력 선수들이 흔들리고 있다. 주머니 받거나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반도체와 자동차가 동반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수출입물가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7.3%와 5.7% 하락했다. 이는 각각 2016년 9월(-8.3%, -7.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것이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 각각 마이너스(-) 1.9%와 -2.1%를 보이며 두 달 연속 내렸다. 특히 수출물가지수는 99.04로 기준치 100(2015년 100 기준)까지 밀렸다. 이 역시 2016년 10월(96.61)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급락, D램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값 하락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실제 10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1% (13.42원) 급락한 1184.13원을 기록했다.

D램 수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주 사실상 반 토막(-49.7%)을 기록

했다. 이는 2011년 12월(-56.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며, 10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한 것이다. 전월 대비로도 7.2% 하락해 두 달째 하락했다.

송재창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환율과 유가가 하락한 데다 반도체가 재고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수출입물가가 모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생산과 수출, 내수 판매가 모두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생산량은 35만1409대를 생산, 전년 대비 7.9% 줄었다. 가이 모닝이 경차 수요 감소로 -18.1%, K5가 신차대기 수요 증가로 -23.8%를 기록한 점이 컸다.

수출 역시 세계 자동차 수요 위축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20만

8714대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특히 아시아(-11.2%)·중남미(-18.4%), 유럽연합(-12.1%) 등 지역에서 감소세가 컸다.

내수의 경우 수입차 판매량이 8.7% 늘었음에도 국산차 판매가 저조했다. 국산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9% 줄며 전체 내수 성적표가 2.1% 감소한 15만7461대 판매에 그쳤다. 올해 전제로 놓고 봐도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부진한 모습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업체들의 수출과 내수 판매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324만2340대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279만 5914대 이후 가장 적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복지부 '한방 난임치료 효과' 발표 못한 까닭

인공수정 만큼 임신 성공
치료비용도 70만원가량 저렴
의사단체 반발 우려 발표 손 떼

정부 지원 임상연구에서 한의학 난임치료 효과가 인공수정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연구 결과 발표를 연구자에게 떠넘겼다.

김동일 동국대 교수가 2015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해 14일 발표한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 난임여성 90명 중 13명이 임신했고, 이 중 7명이 12주 이상 임신을 유지해 출산까지 완료했다. 김 교수는 난임 전문 치료기관(의과)으로부터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받고 월경기간을 제외하고 주 2회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만 22~44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온경탕 및 배란착상방 복용, 침구치료를 병행해 4개월경주기 동안 치료를 하고, 3개월경주기의 관찰기간까지 총 7주기 동안 임신 결과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 90명 중 13명이 임신하고, 이 중 7명이 만삭 출산했다. 치료 완료 대상자들의 임상적 임신율과 착상률은 14.4%였다. 이는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서 발표된 체외수정 임신율(30.2%)보다 낮지만, 인공수정 임신율(13.9%)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치료비용은 한약·침구치료 1주기 평균값이 56만7000원, 4주기 동안은 226만2000원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과거 의과 난임치료에서 평균 295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하지만 유의미한 연구 결과에도 복지부는 발표와 책임을 모두 연구자 개인에게 떠넘겼다. 처음 연구 결과 발표회를 계획했던 한의약정책과는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손을 떼고, 복지부는 청사시설 내 발표를 불허했다.

정황은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을 우려해 급하게 입장을 튼 모양새다. 의협은 이번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난임사업 중단을 요구해왔고, 추나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한의약에 대한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반대해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인니서 열린 '두산 테크데이' 이현순(오른쪽 두 번째) 두산그룹 기술담당 부회장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두산 테크데이'에서 두산산업차량 제품과 관련한 영상을 보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사진제공 두산

'재생에너지 민간협력사업' 지역경제 기여

에너지공단, 상생형 발전 모델 발굴·소상공인 육성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처음 도입한 '재생에너지 지역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상생형 발전 사업모델 발굴, 소상공인 육성, 사회적 금융 출시 등 다방면에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이 합심해 추진한 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공공부지 내 신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143개 소나 발굴했다.

또 포스코 등 10개사가 참여하는 광양산업단지 태양광 발전협동조합 발굴, 광명시 민발전협동조합장립, 여주시민발전협동조합 추가 발굴 등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마련에도 성공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의향이 있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 청주YWCA와 힘을 모아 태양

광 전용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하는 성과도 거뒀다. 태양광 초기구매와 설치비용 부담을 낮추는 저리형 대출상품과 적금상품을 동시에 마련해 에너지 복지기금으로 환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역별로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인근 카페를 임차해 주민공간으로 리뉴얼한 '대덕에너지카페'를 오픈했다. 광명시가 추진하는 '대형경륜장 내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서는 사업 설계단계부터 이해당사자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 수용성 확보의 새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태양광 창업 관련 표준 교육 매뉴얼 개발, 읍면동 단위의 순회 워크숍을 통한 지역 활동가 3000여명 양성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공단은 다음 달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을 선정, 내년에도 지원을 지속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소부장 자립에 4.3억건 특허 빅데이터 활용

특허청 'IP기반의 기술자립·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IP 금융 지원 2022년 2조로
대체기술 파악, 기업에 제공

순위	국가	건수	순위	국가	건수
1	중국	1,542,002	6	독일	67,898
2	미국	597,141	7	인도	50,055
3	일본	313,567	8	러시아	37,957
4	한국	209,992	9	캐나다	36,161
5	EPO	174,397	10	호주	29,957

※ EPO는 유럽특허청 ※ 출처: 특허청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해 4억3000만여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 등의 규모도 내년에 올해의 3배 수준인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허청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대책은 특허 기반의 소부장 기술자립,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소부장 관련 100+α 핵심품목 R&

D 추진 시 세계 모든 기업·연구소 등의 R&D 동향,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 3000만여 건의 기술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연구 방향을 제시해 R&D 성공률을 높이고 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품목에 대한 국내외 대체기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기업에 제공해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소부장 수급 안정성도 꾀한다. 조기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은 특허 분석으로 발굴한 외국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인수합병(M&A) 또는 기술

이전으로의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도 구축해 민간의 활용을 지원한다.

민간 R&D 결과가 원천·핵심특허 확보·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연구개발(IP-R&D) 전략을 강화한다. AI·바이오헬스 IP-R&D를 집중 지원하며, 올해 30건이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중소기업 IP-R&D를 내년 60건으로 늘린다.

올해 7000억 원이었던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2022년까지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 담보제를 도입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도 강화한다. 3배 징벌배상 제도를 IP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도 침해자 이익 전액으로 강화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으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기술 패권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철도 20일부터 파업 예고...운행률 30% 줄 듯

철도 노조가 이달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해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지만, KTX 운행률이 평시 대비 30%가량 떨어지는 등 국민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파업 돌입 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19일부터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광역전철 및 KTX에 집중 투입한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

출근 시 92.5%, 퇴근 시 84.2%로 운행된다. KTX는 평시 대비 68.9% 운행한다. 다만 파업하지 않는 SRT를 포함하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다. 일반 열차는 필수 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을 간신히 맞췄고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31.0%에 불과해 철도를 활용한 유통망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철도 파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이용객이 증가해 여유 좌석을 초과하면 예비버스 125대, 전세버스 300여 대를 투입해 3만9000개의 좌석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지역구〉 〈비례대표〉

‘225 대 75’ 선거제 개편 땀 지역구 26곳 통폐합

수도권 10곳·호남 7곳·영남 8곳 등이 대상...세종·평택 분구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240 대 60’ 검토...확정 시 14곳 줄어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선거구 통폐합에 대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여야를 떠나 자신의 지역구가 하루아침에 소멸할 수 있어서다.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는 여야 협상은 물론 지역구에 사라질 운명에 처한 의원들을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지역구를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지 않고 240석 등으로 새롭게 조정할 경우 통폐합 대상 26곳 중 구제되는 지역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

개편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 중 총 28석을 줄여 225석으로 하고 있다. 지역

구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이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했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곳은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다.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대상인 선거구는 세종과 경기 평택 2곳이다.

현역 의원들의 소속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0곳, 자유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대상이다.

이처럼 인접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치면 통폐합 지역구는 60곳으로 늘어날 수 있어 파장은 더 클 전망이다. 여야 모두 선거법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개편안의 기본 협상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대안신당 포함)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기 위해 ‘지역구 240 대 비례대표 60’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962~28만7924명이 돼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14곳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른 당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이고 ‘240 대 60’ 안 등 일체의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혀 지도부 차원에서 선을 그었지만, 협상 막판 쟁점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 밖에 의석수 비율을 ‘200 대 100’, ‘250 대 50’으로 하는 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하면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6곳으로 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간담회에서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지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한국당이 동참한다면 10% 정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

선거법 통과 시 통폐합·분구 예상 지역구 (지역구 인구 상·하한 범위, 15만3560~30만7120명)

- 통폐합 26 곳
- 분구 2 곳

정당별 통폐합 대상 지역구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무소속
10곳	10	2	3	1

서울 2곳

종로구 (민주당 정세균)
서대문구 (민주당 우상호)

경기 6곳 (통폐합) / 1곳 (분구)

안양시 동안구 (한국당 심재철)
광명시 (민주당 백재현)
동두천시·연천군 (한국당 김성원)
안산시 단원구 (한국당 박순자)
군포시 (민주당 김정우)
군포시 (민주당 이학영)
평택시 (바른미래당 유익동)

인천 2

연수구 (민주당 박찬대)
계양구 (민주당 유동수)

강원 1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한국당 이양수)

경북 3

김천시 (한국당 송연석)
영천시·청도군 (한국당 이만희)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한국당 강석호)

세종 1

(민주당 이해찬)

대구 1

동구 (한국당 정종섭)

울산 1

남구를 (한국당 박맹우)

부산 3

남구 (한국당 김정호)
남구 (민주당 박재호)
사하구 (민주당 최인호)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韓·美 합참의장 방향은 같지만... 박한기(왼쪽)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현역 의장행사에 참석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양국은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지소미아 등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

스타트업 1년 차 서지혁씨

창업 2년 차 김민경씨

오늘의 모습은 달라도
내일의 행복은 같아야 하기에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

육아휴직 4개월 차 황인수씨

요리사 3년 차 민재관씨

인턴 6개월 차 이선규씨

텔레마케터 3년 차 허재영씨

아르바이트 첫 날 박수일씨

맞벌이 5년 차 백서진씨

문 대통령 “K-뷰티 육성 방안 검토하라”

홍 부총리 업무보고에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K-뷰티 산업의 육성을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상황과 관련해 “연말까지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집행강화, 민간기업 투자 애로해소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지자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제2벤처붐 가시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품목 조기 공급 안정화, R&D 투자 확대, 혁신인재 양성,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에 성과를 보고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홍 부총리는 “향후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위해 모든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DNA(Data·Network) (5G)·AI와 핵심 신산업인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첨단기술 개발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창업, 규제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 산업의 육성을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비 및 제도 정비, 획기적 규제효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가 우리 경제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자세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한일 수출규제, 혁신성장 등 각 부처 간 협업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각 부처 장관들이 중심이 되어 원팀으로서의 협력 시스템이 지속·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소프트뱅크 회장〉

이해진 손잡은 손정의... 韓·日연합 '메가 플랫폼' 눈앞

네이버 라인-야후 재팬 통합 추진 이용자 1억명... '슈퍼앱' 등장 예고 美 구글·중 텐센트 대항마로 부상

야후와 라인의 주요 사업	
야후(ZHD)	라인
전자상거래	*일본 전체 시장규모 18조6400억 엔
① 라쿠텐	3조4000억 엔
② 야후	2조3442억 엔
SNS(월간 이용자 수)	
① 라인	8200만 명
② 트위터	4500만 명
스마트 결제(등록자 수)	
*일본 전체 캐시리스 결제 82조 엔	
① 라인페이	3690만 명
② 페이페이	1900만 명
포인트 시장(회원 수)	
*시장규모 1조8930억 엔	
① 라쿠텐슈퍼포인트	1억 명 이상
② Ponta	9225만 명
③ T포인트	6989만 명
④ 라인포인트	4117만 명

※출처: 니혼게이지신문

네이버 산하 메신저 앱 라인(LINE)과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의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글·텐센트 같은 미국과 중국의 메가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한 한·일 연합의 초대형 플랫폼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이버의 해외 사업은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이사회 의장이 총괄하며, 야후재팬은 손정의(사진)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손자회사다. 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라인과 야후재팬의 통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씩 출자해 새 회사를 설립, 이 회사에 Z홀딩스 지분 70% 정도를 보유하게 해 모회사로 만드는 계획이 유력하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모회사는 소프트뱅크가 된다. 8000만 명의 이용자를 거느린 라인과 5000만 명의 이용자를 둔 야후재팬이 통합하면 이용자가 1억 명이 넘는 거대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이해진-손정의' 동맹이 부상한 건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격변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라인의 일본 내 월간 이용자 수는 8200만 명으로 일본 최대이지만 올 6-9월

월간 이용자 수 증가는 전년 동기 대비 5%에 그쳤다. 작년 동기 두 자릿수 성장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올해 1-9월에는 339억 엔(약 3649억 원)의 적자를 냈고, 선행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막막하다.

라인 모회사 네이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인구 5200만 명인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제한되면서 수익성도 둔화하고 있다. 이에 이달부터 금융 자회사를 설립해 증권과 보험, 신용카드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 최대인 카카오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여기다 해외 세력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기존에는 이커머스와 소셜미디어, 금융 등 서비스별로 인터넷 기업이 분산됐지만, 중국에서는 한 개의 장구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텐센트다. 텐센트는 10억 이용자를 기반으로 메신저 앱인 '위챗' 외에 인터넷 쇼핑몰과 결제, 동영상 스트리밍, 게임 등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 앱'으로 거듭났다.

라인이 야후재팬과의 통합을 추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업계에서 이런 '슈퍼 앱' 구축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결제 서비스에 금융업체는 물론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까지 동참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은 기본이다.

NH투자증권은 "메시징 앱과 포털 사이트의 결합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 글로벌 인터넷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KB증권은 "소프트뱅크와 제휴해 네이버로서 세계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후재팬과 라인의 통합 협상 소식에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라인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26.6% 폭등한 51.63달러로 마감했고, 네이버 주가는 전날보다 13.61% 폭등한 17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후재팬도 16.93% 뚝 449엔을 기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中, 내년 성장률 6% 붕괴” 세계 경제성장 엔진 식나

정부 산하기관, 사상 최저치 전망 부채급등에 경기부양마저 어려워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6%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금융개발연구소(NIFD)는 내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6.1%)보다 더 떨어져 5.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중국 정부의 목표치 범위인 6~6.5%에 간신히 턱걸이한다는 뜻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과도 부합한다. 중국 정부 기관이 5%대 성장률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성장 둔화 여파로 내년 중국의 성장률이 더 압박을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2011년 둔화가 시작된 중국 경제는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6.0%까지 낮아졌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작성해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최저치다. 여기서 하락세가 더 이어져 5%대까지 주저앉는다는 것이다.

NIFD는 이 같은 성장 둔화의 배경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중국의 수출이 장기간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무역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투자가 위축됐다고도 설명했다.

쑤저우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재정을 더 풀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급증한 중국 정부의 부채 때문이다. NIFD는 올해 3분기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0.7%포인트 상승해 39.2%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올해 1-9월에만 부채비율이 2%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중국의 올 3분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251%를 기록했다.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NIFD는 중국 정부에 지출을 늘릴 것을 조언했다. 사회과학원의 장빈 연구원은 니혼게이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프라 투자가 크게 침체돼 있기 때문에 채권 사용 확대 등을 통해 투자를 합리적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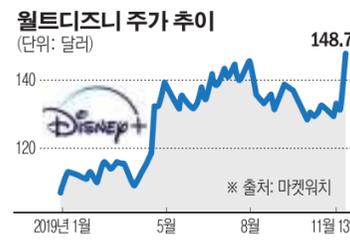
다만, 그는 "과거 경기 부양책에 따른 부채 후유증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서영 기자 0jung2@



美 트럼프 탄핵조사 첫 공개청문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공개 청문회가 13일(현지시간)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나선 윌리엄 테일러(오른쪽)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선서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외국의 힘을 빌리려 권력을 남용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이 나왔으나 탄핵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CNN은 민주당이 트럼프를 탄핵시키려던 청문회에 나오는 모든 증언을 더욱 설득력 있고 간결하게 정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D.C./신화연합뉴스

디즈니+, 첫날 가입자 1000만 돌파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월트디즈니의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가 성공적인 첫출발을 보였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디즈니+는 출시 첫날인 전날 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소식에 디즈니 주가는 이날 7.3% 급등한 148.7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30억 달러 이상 늘어나 총 2680억 달러(약 314조 원)에 이르렀다.

특히 디즈니+는 출시 첫날에 접속 불량 등 기술적 오류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폭발적으로 가입자를 확보해 디즈니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과시했다.

디즈니+ 요금은 월 6.99달러, 연간 69.99달러이며 디즈니와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인기 프랜차이즈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디즈니는 스타워즈 스펀오프인 '만달로리안(The Mandalorian)' 등 디즈니+ 가입자를 위한 오리지널 드라마와 영화도 제작한다.

아울러 가입자들은 12.99달러에 디즈니 산하의 또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와 스포츠 전문인 ESPN+를 패키지로 즐길 수 있다. 이 가격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

기 있는 요금제와 같다. 디즈니+는 7일간 무료 시험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1000만 가입자 모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지는 불확실하다고 CNBC는 지적했다. 한편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은 고객에게 1년간 디즈니+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 숫자가 첫날 가입자 수에 포함됐는지는 불확실하다.

이런 프로모션을 포함하더라도 디즈니+는 이미 넷플릭스와 훌루가 수년에 걸쳐 도달했던 1000만 가입자를 단 하루 만에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CNBC는 강조했다. 디즈니+는 2024년 말까지 전 세계 가입자 수를 6000만~9000만 명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약 1억6000만 명의 가입자를 거느린 넷플릭스를 당장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디즈니+는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에서만 서비스를 개시한 상태로 점차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애플·페북 이어 구글도 '금융공룡'으로 진화

내년 은행계좌 서비스 시작... 핀테크 컬래버 본격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내년에 은행 계좌 서비스를 시작한다. 애플과 아마존닷컴, 페이스북에 이어 구글까지 참여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금융과 기술의 '컬래버레이션(협업)'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캐시(Cache)'라는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미국 대형은행 씨티그룹, 스탠퍼드대 직원들이 설립한 스탠퍼드연방신용조합과 손잡고 내년에 소비자들에게 당좌예금 계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시저 생쿠타 구글 부사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긴 여정이 되겠지만 우리는 금융 분야의 주요 파트너가 될 것이며 이

것이 함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WSJ는 IT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 확보를 위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이미 결제 서비스인 '구글페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당좌예금 계좌 서비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그들이 어디에서 쇼핑하며, 어떤 청구서를 지불하는지 등의 숨은 보석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구글페이 사용자가 2018년 3900만 명에서 2020년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구글은 당좌예금 계좌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엄청난 양의 사용자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WSJ는 구글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대중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 당국은 구글이 검색 엔진, 스마트 스피커, 이메일 서비스, 기타 앱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한편 기술 기업들의 금융 분야 진출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애플은 올여름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아마존은 당좌예금 계좌 서비스 제공을 놓고 일부 은행과 논의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12일 페이스북을 포함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자사 주요 앱에서 두루 통용되는 결제 서비스 '페이스북페이'를 발표했다.

WSJ는 이들 IT 기업의 도전은 금융업계에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전통적 은행들이 IT 기업과의 협업을 늘려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스타트업들을 위해 신한이 광고 시간과 지면을 비워놓겠습니다

이곳에 광고를 하고 싶은 회사는 www.shinhan-ad.co.kr 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후 11월 15일까지 응모해주세요. 더불어, 신한금융그룹 혁신기업 지원 플랫폼 이노톡에서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도 놓치지 마세요 www.innotalk.co.kr

스타트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광고
기발한 광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티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SI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보험사 “文케어로 손해를 상승” vs “상관관계 없다” 건보

‘건강보험 정책’ 진실공방

내년 실손의료보험 인상을 결정하고 손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뜨겁다. 쟁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문케어)’로 손해율이 상승했는지 여부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 이용이 급증했고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등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측은 손해율 상승과 문케어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 정책 연구원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에서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자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설명자료에서 문케어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올리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2016년 131.3%에서 2017년 121.7%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혔

보험연구원

비급여 진료 항목 증가 ‘풍선효과’ 상반기 실손 손해율 130% 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100원 건어 130원 지급한다는데 부가비용 얼마나 제외하는지 몰라

과잉진료 등 지적엔 개선 뜻 모아

다. 2018년 이후 손해율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는 정책연구원의 주장 자체가 무의미한 진술이라고 받아쳤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의 총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험금의 비율로, 부담 주체의 ‘지출’ 요인만 반영된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보험료(수입) 대비 지급보험금(지출)의 비율로, 수입과 지출 요인이 모두 반영된 지표인 만큼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논리다. 즉, 실손보험 손해

실손보험 손해를 산출방식

손해율 구분	산출방식	비고
자동차, 일반손해보험	발생손해액(지급보험금)/납부보험료	영업보험료 방식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납부보험료-부가보험료	위험보험료 방식

※ 참고: 납부보험료=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 위험보험료= 순수하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재원이 되는 돈
- 부가보험료= 설계사 등이 떠가는 사업비, 판매비, 마케팅비 등 관리비용



율은 지급보험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의해서만 아니라 보험료 수입의 증감에 따라서도 변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보험연구원은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수준으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을 산출해야 한다는 정책연구원의 주장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로 손해율을 산정하는 반면 실손보험은 납부보험료에서 사업비(부가보험료)를 뺀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

험금 비율로 계산한다.

정책연구원은 이를 두고 “손해율 130%는 보험사가 100원을 겨우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보험료 100원에서 관리비용과 같은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원인지, 80원인지 모를 금액에서 손해율이 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이런 손해율 산출이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 산출 방식이 다른 것은 보험기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기간이 1년짜리인 자동차보험은 보

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를 그해 다 사용하지만, 보험기간이 긴 실손보험은 그해 받은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를 그해 다 쓰지 않고 장래 재원으로 일부 남겨둔다. 그래서 실손보험 손해율 산정 때 납부보험료에서 사업비(부가보험료)를 아예 빼버리고 계산한다는 것이다.

다만 실손보험의 상품구조가 과다치료, 과잉진료, 비급여 이용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정책연구원의 지적엔 동의했다. 보험연구원은 정책 세미나를 열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은 제정이 추진되는 ‘공·사보험 연계법’이 실손보험 규율에만 편중되면 사보험에 대한 이중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비급여 관리 체계가 보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 정책협의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료 절감 효과가 나오면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된다. 서지연 기자 sjy@



하나금융, 3호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함영주(뒷줄 왼쪽부터)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박경수 강북구청장, 정금용 아람하나어린이집 원장이 14일 서울 강북구 삼양동 ‘강북 아람 하나어린이집’ 개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수은, 아픈 손가락 ‘성동조선’ 떼어낼까

금융인사이트

3전4기 마지막 매각 기회
 HSG重-큐리어스 컨소시엄
 타업체와 달리 일괄매각 원해
 본입찰 6곳 중 자금력도 입증

수출입은행이 네 번째 매각에 나선 ‘아픈 손가락’ 성동조선해양을 떼어낼 수 있을까. 사실상 마지막인 이번 매각에 유력한 인수자 후보가 참여하면서 벼랑 끝에 선 성동조선에도 희망이 생겼다. 이르면 18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여부에 따라 성동조선이 구조조정의 실패 사례로 남을지 극적으로 회생할지 주목된다.

마지막 성동조선 매각 본입찰에 총 6곳의 인수자가 들어왔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불리는 까닭은 올해가 지나면 법원이 작성한 계획안대로 성동조선의 법정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을 뒤집으면서 벼랑 끝에 선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성동조선도 이번이 마지막 기획인 셈이다.

앞서 예비입찰에서는 전략적 투자자(SI) 등 총 7곳이 인수의향서(LOI)를 냈다. 인수의향서가 접수될 때만 하더라도 채권단 측은 매각에 회의적이였다. 절반이 넘는 곳이 앞서 입찰에 나섰

성동조선해양 매각일지

2018년 3월	창원지법에 회생신청
2018년 4월	회생절차 개시
2018년 12월	1차 매각 유찰
2019년 2월	2차 매각 유찰
2019년 6월	3차 매각 유찰
2019년 11월 8일	4차 매각 예비 입찰
2019년 11월 13일	본입찰 유력 인수후보 등 6곳 본입찰 참가
2019년 11월 18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예정)

던 업체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동조선의 매각 단가로 알려진 310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성격의 자금력도 입증하지 못하면서 탈락했다.

하지만 이번엔 자금력을 입증한 후보가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창원법원 측은 “6곳의 본입찰 참여 기업 중 적격인수자가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에 터를 둔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다른 인수자와 다르게 1·2야드를 포함한 회사 전체의 일괄매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야드 중 일부 부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1107억 원에 사들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본입찰에 이어 실제로 MOU까지 체결되면 인수자로서도 매수 의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뜻한다. 우선협상 대상자는 법원이 정한 관계인집회 기한까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계약금 약 300억 원을 허공으로 날릴 수 있어서다. 단

순히 찢러보기엔 지출하는 금액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입찰 이후 실제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 포인트다.

주채권은행인 수은에도 밝은 소식이다. 수은에 성동조선은 그야말로 아픈 손가락이다. 구조조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으나 한쪽에선 과도한 혈세를 투입한다는 비판을, 또 다른 쪽에선 선수금환급보증(RG)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은 입장에서는 지원해도, 하지 않아도 비판을 받는 상황이 계속됐다.

따라서 성동조선을 매각하는 게 어려운 논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다. 불가피하게 성동조선이 파산으로 가더라도 수은은 계속해서 성동조선이란 그림자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번째 입찰도 불발되자 수은이 법원 측에 분리매각을 요청한 것도 매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성동조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조선업 불황으로 신규 수주 부진까지 겹쳐 위기에 빠졌다. 중국 조선소들이 저가 수주로 치고 올라오면서 경영 상황은 더 악화됐다. 2010년 4월엔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갔고, 지난해 4월엔 법원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투자금 이탈 리스크 없앤 ‘토스’ 제3인터넷銀 사업권 획득 ‘청신호’

임시 주총서 RCPS→CPS 전환
 자본 안정성 우려 일단락
 “신뢰 기반 주주들 과감한 결정”



정된다. 토스는 2013년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3000억 원의 자본을 여러 벤처캐피털로부터 대부분 RCPS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올 초 1차 인터넷은행 결합 당시 금융당국은 주주가 상환을 요청해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엑시트)할 수 있다며,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주식 전환으로 이런 우려는 씻어냈다. 기존 투자자들은 상환권이 사라지고, 향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된 전환우선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승건(사진) 대표는 “모든 투자자가 다 른 조건 없이 상환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정을 한 것 역시 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자본 안정성에 대한 이슈를 일단락하고 토스가 금융 혁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제3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비바리 퍼블리카(토스)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자본 안정성 숙제를 풀었다. 이로써 사업권 획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토스는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량을 전환우선주(CPS)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요 주주들은 이런 내용에 전원 동의했다.

RCPS는 일정 조건에서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류 주식이다.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주주 전원이 상환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완전히 삭제해 전량 전환우선주(CPS)로 변경됐다. 전환우선주는 일반회계기준(K-GAAP)뿐 아니라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도 ‘자본’으로 인

정기적금 1兆 급증... 7년여 만에 ‘최대폭’

예금은행 정기적금이 1조 원가량 급증하며 6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잔액 또한 35조 원을 돌파해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 정기적금 잔액은 전월 대비 9882억 원 급증한 35조155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2

년 10월 1조164억 원 증가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며, 2016년 12월 35조 4594억 원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정기적금 또한 전월보다 1조3884억 원 증가한 753조412억 원으로 8개월째 역대 최고치를 이어갔다. 다만 7·8월 각각 12조 원 급증 이후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한편, 은행과 중앙정부, 비거주자예금을 제외한 은행 정기예금은 10월 기준 14조 4968억 원 급증한 740조1236억 원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신예대출 적용을 코앞에 두고 예적금을 늘리려는 요인이 있었던 데다, 고객 입장에서 마땅히 고수익 투자상품이 없다 보니 예적금에 자금을 파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스타트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광고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스타트업들을 위해
신한이 광고시간을 빌려드립니다

신문 광고에서, 온라인 광고에서
스타트업의 기술과 잠재력을
널리널리 알릴 수 있도록

스타트업 여러분의 가능성을 담은 광고로
기회를 발견하는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Hope. Together.

- 모집 내용 : www.shinhan-ad.co.kr 참고
- 모집 기간 : ~11/15(금) 까지
- 창업 관련 다양한 정보는
혁신기업 지원 플랫폼 이노톡에서 확인하세요
www.innotalk.co.kr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혁신 창업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이노톡**
청년 창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공간 **두드림 스페이스**
청년들을 위한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영 챌린저**

LG화학 “경쟁사, 증거 인멸 지시”...SK이노 “정정당당”

‘배터리 소송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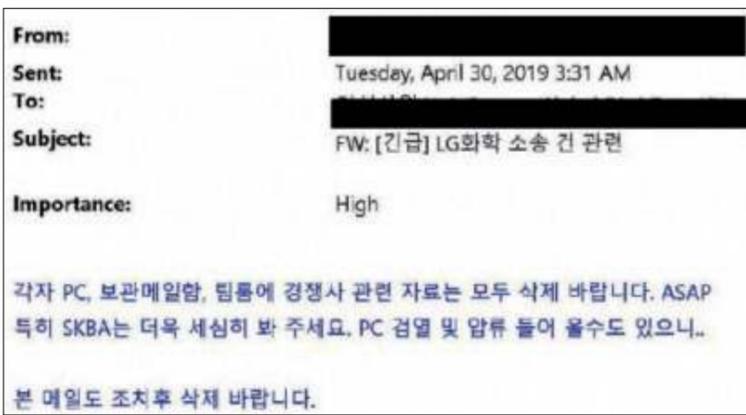
LG, SK의 자료 삭제 메일 공개
美 무역위에 조기 패소판결 요청
SK “소송 충실하게 대응 중”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법정 모독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자사는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소송에서 여론전을 유리하게 끌어 가려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LG화학은 14일 SK이노베이션이 증거 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 모독’ 행위를 하고 있다며 ITC에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13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에



LG화학이 공개한 SK이노베이션의 자료 삭제 지시 이메일.

사진제공 LG화학

재됐다.

이번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패소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생산·테스트·수주·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통상 조기 패소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 단계까지 진행될 것 없이 피고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진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

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이러한 요청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전자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LG화학은 소송을 제기한 이튿날인 4월 30일 SK이노베이션이 ‘FW: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사내 메일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 메일에는 “각자 PC, 보관 메일함, 팀룸에 경쟁사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 바

라”며 “특히 SKBA(SK이노베이션 전지 사업 미국법인)는 더욱 세심히 봐 달라. PC 검열 및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본 메일도 조치 후 삭제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LG화학은 소송 제기 전에도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없애려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이 ITC 영업비밀침해 제소에 앞서 4월 8일 SK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발송 당일 SK이노베이션이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같은 달 12일 사내 75개 관련 조직에 삭제지시서와 함께 LG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하며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으며 ITC 역시 포렌식을 이

례적으로 명령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980개 문서가 정리된 ‘SK00066125’ 한 개의 엑셀 시트만 조사했으며, 나머지 74개 엑셀 시트에 대해서는 ITC는 물론 LG화학도 모르게 9월 말부터 별도의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해 은밀하게 자체 포렌식을 진행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탈취한 영업비밀을 조직적으로 관련 부서에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경력사원 면접평가 자료에 따르면 “타사의 믹싱 기술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국 공정 노하우를 단시간에 흡수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내에 공유한 이메일에는 “LG화학 연구소 경력사원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LG화학의 전국 개발 및 생산 관련 상세 영업비밀 자료가 첨부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LG화학 주장에 대해 “여론전에 의지해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사와 달리 소송에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 중”이라는 견해만 내놓았다. 김유진 기자 eugene@

국과수 이어 소방당국도 ESS 화재 규명 나섰다

충전·방전 시 온도 변화 실험
정부 합동조사 이후 5곳 화재
아직도 명확한 원인 도출 못해

소방당국이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충·방전 시 온도와 전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다.

잇따른 ESS 화재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와중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배터리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소방청 산하 국립소방연구원이 최근 ‘ESS 배터리 모니터링 시험설비 제작’을 의뢰했다.

ESS 리튬이온배터리 모니터링 시험설비 1대를 소방연구원 안전연구동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설비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BMS), 파워서플라이, 방전부 등으로

구성, 제작된다.

태양광 발전 또는 상용 전원으로 ESS 배터리를 충전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운영한다.

태양광 연계 ESS의 경우 직류(DC) 전류에서 DC 전류로 이어지는 형태로 구성한다. 피크저감용 ESS와 같이 상용 전원과 연계한 ESS는 전력변환장치(PCS)를 통해 교류(AC) 전류에서 DC로 변환해 보내는 식으로 작동한다. 일각에서는 이 PCS가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배터리가 충전, 방전될 때 발생하는 전압과 온도 등을 측정, 관련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실험의 목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ESS의 충전, 방전 중에 일어나는 변화 값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실험”이라며 “아직 배터리 화재와 관련 있는 결과가 나오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7년 8월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ESS 화재는 총 28건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합동조사를 펼치고 6월 결과를 발표했다지만, 그 이후로도 5곳에서 불이 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직접 나서 LG화학, 삼성SDI 등 불탄 ESS 배터리 중 상당수를 조사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관계자는 “ESS 배터리 화재 조사 결과는 이미 나와 해당 내용을 경찰에 넘겼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정부에서도 관련 내용 유출을 쉬쉬하는 분위기다.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ESS는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경찰에 배터리 업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관련 내용 유출을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삼성전자 ‘비스포크’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 비스포크 ‘디자인 공모전 대상’ 양산 검토

삼성전자가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BESPOKE)’ 디자인 공모전 대상 작품을 내년 4월에 열리는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전시한다. 추후 판매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3일 삼성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 위치한 라이프스타일 가전 쇼룸에서 ‘#BESPOKE랑데뷰 파티’를 열어 파이널리스트 10명의 작품 전시와 함께 시상식을 진행했다.

비스포크 디자인 공모전은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해 냉장고를 직접 디자인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8월 30일부터 진행했다.

총 1114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2만 8000여 명이 온라인 공개 투표에 참여해 파이널리스트 10명을 선정하는 등 소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다.

대상은 수면 위에 물감을 띄워 수백 개의 동심원을 그린 후 종이에 찍어내는 수전사 기법을 바탕으로 제작된 조경민 씨의 ‘플로팅 링스(Floating Rings·물 위에 떠 있는 동심원)’가 차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인니 정부 요청 ‘두산 테크데이’ 개최

가스터빈·협동로봇 등 현지 소개

두산그룹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기술과 제품을 알리는 단독 전시행사를 열었다.

두산은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로보틱스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 ‘두산 테크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산 테크데이는 인도네시아 정부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한 과학기술청(BPPT) 전시공간에서 진행됐다. 특정 기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과 지원을 받아 단독으로 전시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행사에는 루훗 빈사르 벤자이판 해양조정부 장관을 비롯해 장관급 정부 관계자들과 인도네시아 주요 국영기업 사장들이 참여했다.

우리측에선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대사, 이현순 두산그룹 기술담당 부회장, 백형범 두산인프라코어 엔진 영업담당 전무, 현지 진출한 투자회사 및 사업 파트너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날 행사에서 디젤 엔진과 후처리부품 등을 전시하고, 현지 엔진 기업과 함께 추진 중인 ‘국영 엔진 생산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신규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에도 나섰다.

두산중공업은 EPC 사업과 발전 기자재, 가스터빈 등의 기술과 함께 해외 네트워크를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인지도를 높였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산업차량,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은 협동 로봇과 지게차, 수소 연료전지 드론 등 각사별 주요 제품군을 소개했다. 김기송 기자 kissong@



갤럭시 광고에 ‘스타워즈’

삼성·디즈니 공동 마케팅

삼성전자가 디즈니의 ‘스타워즈’ 시리즈와 연계한 마케팅을 시작하는 등 디즈니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1일(현지시간) 디즈니와 함께 ‘삼성 갤럭시: Connect your Galaxy this Holiday(이번 휴일에 당신의 갤럭시를 연결하세요)’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시작했다. 광고는 삼성전자 기기 간 끊임 없는 연결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음 달 개봉을 앞둔 스타워즈 시리즈 완결편 ‘스타워즈 9: 더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홍보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DB하이텍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DB하이텍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DB하이텍은 3분기 매출 2223억 원, 영업이익 618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52% 증가한 수치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28%에 달한다.

DB하이텍은 전력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한 동시에, 고전력 파워소

자, MEMS센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신규 제품의 본격 양산으로 고객 수주가 꾸준히 증가한 것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부가 신규 제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고객 수주 역시 견조해 당분간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DB하이텍은 전기차, 5G, IoT, AI, AR·VR 등 신규 응용분야에 기술력을 집중함으로써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 성장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현대차 “25% 관세 피하자”...신형 픽업美 생산

4인승 픽업트럭 포니 이후 처음 ‘싼타크루즈’ 기반 2021년 양산 국내 역수입 가능성 사실상 제로

북미 픽업트럭 시장을 겨냥해온 현대차 동차가 결국 수출 대신 2021년 현지 생산을 결정했다.

해당 모델의 국내 역수입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국내 생산을 추진해도 화물차 혜택은 누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만일 국내 출시가 확정되면 화물차가 아닌, 또 하나의 SUV(스포츠크리티치)를 지향하며 시장을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13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법인은 픽업트럭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트럭을 2021년부터 앨라배마 공장에서 양산한다고 밝혔다.

새 모델은 앞서 2015년 북미오토쇼에 선보인 콘셉트카 ‘싼타크루즈’가 밑그림이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과 편의성, 안전장비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현대차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픽업트럭에 부과된 고요율 관세 일몰 시점(2021년)을 기다려왔다. 현지 진출을 위해 2015년 콘셉트카 ‘싼타크루즈’를 선보이며 반응도 살폈다.

하지만 지난해 한미 FTA가 개정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면서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인하 시점은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기됐다. 현재 승용차 관세는 2.5%다. 반면



현대자동차의 신형 픽업트럭은 콘셉트카 ‘싼타크루즈’를 기반으로 제작 예정이다. 사진제공 현대차

픽업트럭은 25% 수준이다. 결국 픽업트럭 관세 인하 시점이 연장됨에 따라 현대차가 수출 대신 현지 생산을 택했다.

앞서 선보인 ‘싼타크루즈’는 픽업트럭과 SUV의 강점을 갖춘 ‘2열 4인승’ 구조에 개방형 적재함을 갖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가 포니 기반의 소형 픽업을 생산한 이후 처음이다. 밑그림은 중형 SUV인 싼타페다. 다른 픽업처럼 화물차 기반의 ‘프레임 보디’가 아닌, 승용차 베이스의 ‘모노코크 보디’ 구조다.

싼타크루즈의 국내 시판은 미정이다. 먼저 앨라배마 공장 생산물량이 국내에 역수입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미에서 인기를 끄는 기아차 대형 SUV ‘텔루라이드’도 같은 이유로 국내에 역수입이 무산됐다.

나아가 개방형 적재함을 갖춘, 외관상 화물차지만 국내에서는 화물차로 분류할 수 없다. 연간 2만 원대의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내 법규상 화물

차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승객석과 화물 공간이 분리돼야 한다. 쌍용차 텍스톤 스포츠의 경우 프레임 보디 위에 두 가지 공간이 서로 분리돼 있다. 화물칸 면적이 승객석보다 더 넓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이래저래 ‘싼타크루즈’가 국내에 시판되도 화물차로 인증돼 세제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주요 권역분별 현지 전략차종을 내놓는 것처럼 픽업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국내 출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HDC, 아시아나 인수 단장에 이형기 전무

내년 상반기 인수 마무리



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장은 광주 살레시오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현

HDC가 아시아나항공 인수준비단을 출범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준비단을 출범하고 이형기(사진) 전무를 인수준비단장으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12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과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형기 단장을 필두로 HDC 각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준비단은 주식매매 계약체결 이후 인수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인수준비단은 향후 예정된 일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인수 절차를

대산업개발(현 HDC)에 입사해 그룹 내 대표적 전략기획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해왔다. 이후 기획실장, 미래혁신실장, HDC현대EP 경영기획부부장 등을 거치며 HDC의 경영철학 재정립과 더불어 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빅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한 바 있다.

이 단장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인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HDC와 아시아나항공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中 대표 스마트폰 업체들 종합 전자회사로 변신 중

샤오미·화웨이, TV시장 진출
가전회사 하이센스, 휴대폰 출시
“中 정부 지원 업고 사업 확장”

중국 기업들이 주력 산업 외의 업종에 뛰어들며 국내 하이테크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가전회사가 스마트폰과 반도체에 진출하고, 스마트폰 회사가 TV 사업에 진출하며 사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가전업체 하이센스(Hisense)는 보급형 스마트폰 ‘킹콩 6’을 발표했다. 이 제품은 배터리 용량만 1만10mAh에 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체에 551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4500mAh 용량의 커스텀 배터리 케이스가 함께 제공된다.

중국 TV 전문 전자회사인 TCL은 올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국제가전박람회)에서 폴더블 폰 시제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와 비슷하게 생긴 이 제품은 ‘폴더블 태블릿 디스플레이 콘셉트’라는 명칭으로 유리판에 보관된 채 관람객을 맞았다.

앞서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 로열(ROYOLE)도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IT 전시회 CES에서 폴더블 폰 ‘플렉스파이(FlexPai)’를 선보였다.

중국 가전업체 쿤카(KONKA)는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전통적인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가전 시장 진출도 활발하다. 스마트폰과 소형가전, IT 주변기기 등에 집중해왔던 샤오미는 TV 제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며 대형

가전 사업에도 나서고 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32·43·55인치 TV를 선보였다. 샤오미는 이달 들어선 스페인 시장 진출을 발표했으며, 내년 1분기에 첫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오미 외에 화웨이도 TV 시장에 뛰어들었고, 스마트폰 업체인 원플러스도 최근 TV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오포와 비보 역시 TV 시장 진출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LCD(액정표시장치) 산업을 따라잡는 중국이 규모의 경제와 기술 상향평준화로 세트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하이테크 수출 품목 가운데 전자통신기기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25.1%로 세계 1위다. 2000년 12위(3.1%)에 그쳤던 중국은 2005년 1위(12.2%)로 올라선 뒤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3위(8.4%)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 간의 인수·합병(M&A)도 이뤄질 것이며, 치킨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살아남은 중국 기업은 더 거대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처럼 TV,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전자회사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 STORY 인생茶 한 잔 하실래요?

- PART1. 차 입문 - 차근차근, 차의 세계에 다가가기
- PART2. 차의 진실 - 산야초 전문가 전문희와 다담(茶談)하다
- PART3. 맞춤 차 분석 - 취향 저격, 내게 맞는 차 고르기
- PART4. 계절별 한방차 - 내 몸이 茶茶 좋아하는 건강 한 모금
- PART5. 팡팡 체험 1박 2일 - ‘명주와 다배(茶조할까요)’
- PART6. 힐링 찻집 순례 - 차 맛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낸 명소 5주5색



“김현식이 그려온 11월에는 방황하기 싫어 공명해요” 언더그라운드와 전설, 신촌블루스를 만든 남자 ‘업인호’



전통과 현대를 뒤흔 침묵으로 문명적 여승세계를 수놓다 실그림 마티스트 손민숙 작가



“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죠” 배우머리 김병조



더불어 숲 호수를 담은 마음으로 언지 못할 사랑이 있더라

귀촌 인생의 쓴맛 안엔 보약도 들어 있다

매직한 사실 하나 귀촌하고 그의 귀농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귀농 7년 차 농사도 실감도 어떤 자리 잡힐 만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문기(문해) 씨는 아직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자녀 제나 진로를 둘러싼 것 같다. 화살을 쏘았으니 여태 과녁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속사정을 모르는 남들은 일쑤 ‘귀농우수사략’로 치지만, 사실은 실재 사례에 가깝다는 게 아닌가.



티빅티빅 산책 청라언덕 넘어 김광석골목까지,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대구 청라언덕으로 가는 길에 가격 동우생각을 송영(가)였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한나리꽃 향내 맡으며...’ 어릴 적 배운 노래에도 노랫말이 또렷이 떠올랐다. 우리나라 근대 문명을 묘사한 벽화 골목을 지나자 이따미한 언덕이 나타났다. 청라언덕은 상상했던 것만큼 아름다웠다.

시니어 발상
올바른 생활습관+안과 노화 예방에 좋은 녹차 활용 레시피
상속과 증여 돌아보기
김성우 변호사
가업승계
최신 트렌드와 전략

고고가게
지하철로 떠나는 오래된 맛집, 이젠이야 고고가게를 지난 5개월여 걸쳐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으로 나눠 총 15곳을 소개했다. 맛과 추억, 음식 냄새와 사람 냄새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던 그곳들을 다시 한 번 호명해보려 한다. 그동안의 여정을 총정리하며, 특별히 해외 독자들과 식재료를 위한 영문 버전도 함께 준비해왔다.

3208개 부스 '역대 최대'... 한파도 날려버린 게임 열기

〈36개국 691개사 참여〉



부산 벡스코서 17일까지 열려
BTC관 접수 2시간 만에 완판
코스프레어워즈 등 재미 더해
NC소프트·넥슨 불참은 아쉬움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스타 2019'가 개막한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각종 신작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 대축제 지스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역대 최대규모를 경신하며 14일 성황리에 개막했다.

올해 15화째를 맞은 '지스타 2019'는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주최,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17일까지 4일간 열린다.

개막식에는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승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 '지스타 2019',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 달성=올해 '지스타'에는 36개국 691개사가 참여, 지난해(2966부스)에 비해 8.2% 많은 3208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웠다.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지스타' BTC관은 조기 신청 접수 2시간여 만에 부스가 소진됐고, BTB관도 국내외 비즈니스 성과를 위한 업계의 관심으로 지난해 이상의 결과로 이어졌다"며 "지스타"를 향한 게임업계의 뜨거운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4일간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게임문화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BTC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세대 공감='지스타' BTC관은 벡스코 제1전시장 전관, 야외 이벤트 광장(작년 매표소 부지), 야외 이벤트 도로를 활용한다. 올해는 역대 최대 시점에 BTC 부스가 모두 소진되어 지난해 성과를 뛰어넘었다. 최종 개최 규모는 작년 1758부스 대비 7.8% 증가한 1895부스다.

국내 기업으로는 넷마블, 아프리카TV, 크래프톤, 펠어비스, LG전자, 인벤, 엔젤게임즈, LG유플러스 등이 참가하며, 해외 기업으로는 슈퍼셀, 구글, 그라비티, 미포요, XD글로벌 등이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이외에 창업진흥원도 유망 44개의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공동관을 꾸렸다. 다만 3N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국내 3대 게임 대기업인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중 NC소프트와 넥슨 두 기업이 불참해 게임 팬들의 아쉬움을

남겼다.

야외 이벤트 광장과 도로에서는 코스튬플레이어들이 게임 속 캐릭터로 분장해 행사장 곳곳에서 관람객들과 사진을 찍는 이벤트가 진행되며, 총 상금 500만원이 걸린 코스프레어워즈도 개최된다.

◇ 전시장 안팎 e스포츠 행사도 다양='지스타 2019'는 작년에 이어 e스포츠 콘텐츠가 다수 마련됐다. 먼저 오디오토리움에서는 '지스타' 메인 스폰서인 슈퍼셀이 15-16일 양일간 '브롤스타즈' 세계 최강팀을 가리는 '브롤스타즈 월드 파이널'을 개최한다.

전시장에서는 아프리카TV가 4일 동안 '철권', '피파온라인4', '스타', '스타2' 등 다양한 게임 종류의 e스포츠 콘텐츠를 선보인다.

엔젤게임즈는 e스포츠 업계를 주름잡던 전설의 프로게이머들과 국내 최고의 인기 인플루언서들이 모여 최후의 1인을 가리는 스페셜 e스포츠 매치를 펼친다.

부산=김정용 기자 cogito@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IP 게임 6개 발표

하나의 IP로 서로 다른 게임 만들어... 낚시·생활 스킬 즐기고 군단 육성도

2년 만에 지스타에 참가한 그라비티가 자사 최고의 흥행 IP 라그나로크를 전면에 다수 내세웠다. 올해 발표한 신작 8개 중 6개를 라그나로크 IP로 채워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4일 그라비티는 지스타를 맞아 신작 출시와 기업 향후 전망에 관한 합동 인터뷰를 했다. 그라비티에 대한 최대 관심은 라그나로크에 집중된 신작 출시였다.

그라비티는 이번 지스타에서 '라그나로크 오리진', '라그나로크 택틱스', '라그나로크X 넥스트 제너레이션', '오라차차돌격라그나로크2', '라그나로크 크루세이드: 미드가드 크로니클', '더 로스트 메모리즈: 발키리의 노래', '미즈 나

오미 퍼즐', '퍼들 머플' 등 8개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 중 '미즈 나오미 퍼즐'과 '퍼들 머플'을 제외한 6개 게임은 모두 라그나로크 IP를 활용한 여러 장르의 게임이었다.

김진환 그라비티 이사는 "사실 라그나로크는 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IP"라며 "라그나로크 하나의 IP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장르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방대한 세계관이 이 IP가 가진 힘"이라고 말했다.

그라비티를 대표하는 올해 신작은 '라그나로크 오리진'이다. 모바일 MMORPG인 이 게임은 라그나로크 IP의 원작인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감성을 가장 잘 살리는 데 집중했다. 라그나로크

세계관 속 유명 도시들이 재현되고, 원예, 채굴, 낚시 등 생활 스킬을 즐길 수 있다. '라그나로크X 넥스트 제너레이션'과 '오라차차 돌격 라그나로크 2' 역시 모바일 MMORPG 게임이다.

'라그나로크 택틱스'는 모바일로 구현된 SPRG 게임이다. 자신의 군단을 육성해 아레나, PVP, MVP사냥 등을 즐길 수 있다.

'라그나로크 크루세이드'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백 년 전 이야기를 다룬 PC 온라인 게임으로, 횡스크롤 3D 액션 RPG라는 부분이 이색적이다. '더 로스트 메모리즈'는 스토리 RPG 장르의 모바일 게임으로 발매된다.

IP에 역량이 편중되며 발생할 수 있는



그라비티 개발진이 신작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유저 잠식 문제에 대해 김진환 그라비티 이사는 "사실 태국 시장을 살펴봐도 가령 라그나로크M을 하던 유저가 라그나로크 택틱스도 함께 즐기는 등 유저 잠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게임의 신서버를 열어본 결과 유저들이 원하는 것은 신서버가 아닌 새로운 게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신규 IP 개발 관련해서는 "많은 이들이 기억해주는 그라비티의 IP가 라그나로크지만 드라고나, 레퀴엠, 에코 등의 IP를 기획한 바 있었다"며 "라그나로크와 앞서 언급한 IP들 이외에도 내년이나 내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IP 개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부산=김정용 기자 cogito@

엔씨소프트 "리니지2M, 27일 출시... 실적 반등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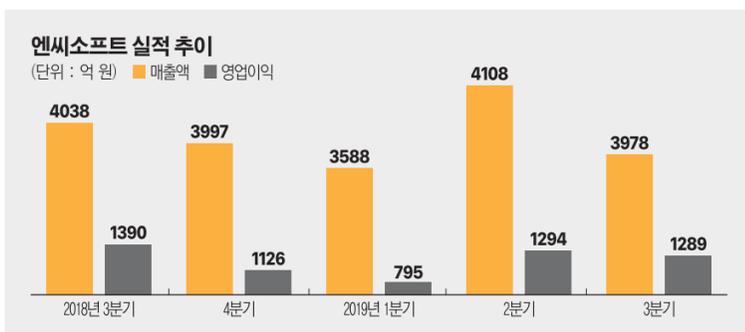
사전 예약 700만명 넘어 역대 최대
내년 '블레이드&소울S' 출격 대기

엔씨소프트가 27일 국내에 '리니지2M'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 내년 해외 시장에 '블레이드&소울S'를 선보인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8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978억 원으로 1% 하락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1136억 원으로 20% 성장했다.

매출액을 게임별로 살펴보면 리니지2M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게임 매출이 213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리니지 518억 원, 리니지2 230억 원, 아이온 132억 원, 블레이드 & 소울 215억 원, 길드워 2151억 원 등을 기록했다.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매출을 27일 리니지2M이 출시된 이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리니지2M은 현재 사전 예약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목소리를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유저들의 기대치도 높은 상황이다.

내년에는 블레이드&소울S와 아이온2 등을 비롯해 리니지 라인업도 확대해 엔씨소프트의 브랜드를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블레이드&소울S는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개발이 진행돼 왔다. 다만 개발 지연이 아닌 사업적으로 해외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시가 내

년으로 결정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블레이드&소울S는 해외 시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외 시장에 우선 출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작품을 어떠한 순서로 배치해 출시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는 리니지2M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며 "리니지2M 국내 출시 이후 트래픽 안정화와 업데이트에 집중해 한국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웅진코웨이, 서비스품질 국무총리 표창

국가품질 경영대회서 영예
'품질경영력 우수기업' 7회째 선정

웅진코웨이가 '2019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서비스품질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및 '품질경영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14일 웅진코웨이에서 따르면 전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오토리움에서 '2019 국가품질경영대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는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높은 경영 성과로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표창하는 제도다.

웅진코웨이는 이번 대회에서 '서비스품질우수상' 최고등급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동시에 역대 7회째 '품질경영력 우수기업'으로 손꼽히는 쾌거를 달성했다.

웅진코웨이는 서비스 점검 기준 및 범위를 확대해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선제적 위생 케어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는 정수기 내부를 필터로 거른 깨끗한 물로 살균해주고 서비스 진행 내용을 소리와 화면으로 알려주는 '코디 서비스 키트'를 새롭게 도입해 서비스 전문성과 위생성을 향상시켰다. 정수기 내부의 주요 위생 부품을 렌탈 기간에 1~2회 무상으로 전면 교체해주는 '스페셜 케어 서비스'를 시행해 위생을 강화했다.

체계적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제품 안전성을 향상시킨 점도 호평받았다. 웅진코웨이는 업계 최고수준의 신뢰성 시험 규격을 구축하고, 신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완성도를 검토하는 '품질검증체계'를 도입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풀무원發 ‘얇은 피’ 만두전쟁 1위보다 뜨거운 ‘2위 각축전’

CJ제일제당 ‘비비고’ 독주 속
풀무원 ‘얇은피만두’로 2위
해태 질세라 ‘고향만두 소담’
동원·신세계 등도 경쟁 가세



냉동만두 시장 점유율 변화

(단위: %)	2016년	2017년	2018년
CJ제일제당	39	42	44
풀무원	11	10	11
해태제과	18	16	16
동원F&B	13	13	11

* 출처: 냉동만두 업계

냉동만두 시장 2위 쟁탈전이 치열하다. 냉동만두 시장은 CJ제일제당의 나홀로 독주가 이어져오면서 오랜 기간 순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만년 3위 풀무원이 ‘얇은 피 만두’를 히트상품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2위 자리를 차지하며 2위 경쟁에 불을 지폈다. 수년간 2위 자리를 지켜온 해태제과는 신제품 출시와 이벤트를 앞세워 2위 탈환을 노리고 있다. 냉동만두 시장은 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가 전체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다. 선두 다툼보다 치열한 중위권 경쟁이 펼쳐지는 이이다. 풀무원과 해태제과, 동원F&B는 나란히 10%대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히트상품 하나로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최근에는 풀무원의 약진이 눈에 띈다. 14일 풀무원에 따르면 풀무원식품이 올해 3월 출시한 ‘얇은피짜잔속 만두’가 누적 판매량 1000만 봉을 넘어섰다. 국내 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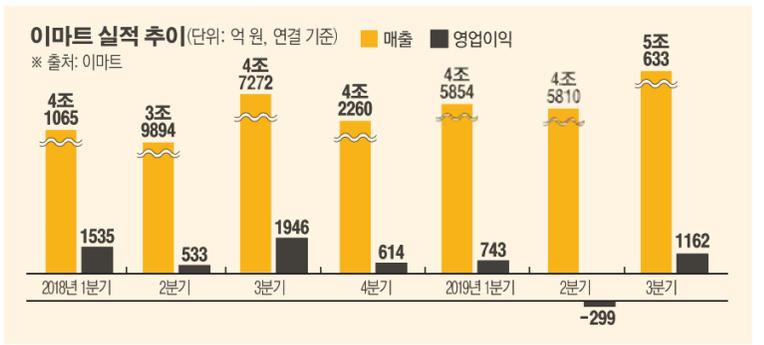
가 얇은 ‘고향만두 소담’ 2종을 출시했다. 시원한 김치 맛을 살린 ‘김치만두’와 100% 보성녹두를 사용한 ‘고기만두’로 만두피 두께는 0.65mm다. 감자전분 대신 타피오카 전분을 넣은 반죽을 수분이 줄지 않게 진공상태에서 차대 피는 얇아졌지만 식감은 더 쫄깃해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해태제과는 이례적으로 경품 이벤트 행사를 열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해태제과는 10일까지 가을 여행 상품권을 증정하는 고향만두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다.

동원F&B, 신세계푸드 등도 ‘얇은 피’ 만두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풀무원 따라잡기에 나섰다. 냉동만두 시장은 지난해 45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했으나 성장이 둔화됐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중위권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시장이 커질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문경선 유로모니터 식품&영양 부문 총괄연구원은 “전통적으로 속이 짙찬 만두를 선호하는 한국 소비자의 특징을 반영한 얇은 피 만두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며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기를 얻은 다양한 형태의 만두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초저가’로 끌어올린 이마트 ‘흑자’

3분기 매출 5兆 전년비 7.1% 오르고 영업이익 1162억

이마트가 2분기 적자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이마트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으로 순매출 5조633억 원을 달성해 전년 대비 7.1% 신장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분기 매출 5조 원 돌파는 최근 몇 년 새 눈에 띄게 개선된 수치다. 영업이익은 1162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별도 기준으로도 126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0.3%, 별도는 36.4% 떨어진 수치다.

이마트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은 최근 가장 높은 수치로, 최근 지속적 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인점 업계의 상황에 비춰볼 때 향후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마트가 실적 반등을 통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은 8월 이후 주력사업인 대형마트의 기존점 매출 감소 폭이 축소된 이유가 크다.

저온 현상으로 7월 매출은 부진했으나, 8-9월 기존점 매출 감소폭은 3.1%로 상반기 기존점 매출 감소폭인 3.2%보다 개선됐다. 이 기간 동안 공휴일이 작년보다 하루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출 감소폭은 2% 수준으로 개선 추세가 더욱 뚜렷해진다. 10월 역시 매출 감소폭이 2.2%를 기록해 매출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저가 프로젝트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이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대한민국 스페이’의 성공도 향후 실적 개선의 기대감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실제로 8월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의 첫 상품으로 선보인 ‘도스코파스’ 와인의 경우 100일간 84만 병이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특히 생수와 물티슈 등은 신규 고객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페이 역시 11월 2일 하루 동안 160만 명의 고객을 이마트 매장으로 이끌며 전년 대비 70%가 넘는 매출 증가를 일궈냈다.

이마트는 ‘에브리데이 국민가격’과 ‘대한민국 스페이’가 경쟁 업체나 타 유통업체로 향하던 고객의 발길을 이마트로 되돌리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이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결 자회사의 실적도 나쁘지 않다. 신세계푸드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이어지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각각 6억 원과 22억 원 증가했다. 이마트24도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이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이익 개선의 기대감을 높였다.

3월 탄생한 온라인 법인 에스에스지닷컴은 검색엔진 광고 등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적자 규모는 확대됐지만, 매출은 21.3% 증가해 안정적인 외형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수치는 상반기 매출 신장률 14.5%에 비해 6.8%p 증가한 것으로 3분기 온라인 시장 전체 신장률 19%를 상회하는 실적이다.

이마트는 ‘상품과 가격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고객이 이마트를 찾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제공, 실적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한민국 스페이’ 행사에서 확인했듯이, 좋은 상품을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에 선보인다면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일렉트로마트 입점과 푸드코트 리뉴얼 등 기존점 리뉴얼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전문점 사업 역시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등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3분기 흑자전환은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가보니 프리미엄 리빙 편집숍 ‘더콘란샵’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15일 영국 프리미엄 리빙 편집숍 ‘더콘란샵(The Conran Shop)’이 세계 최대 규모로 문을 열었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1000평 매장 어디를 찍어도 ‘인스타각’

세계 12번째 매장... 실험실·클럽 라운지 등 차별 다른 콘셉트

프리미엄 리빙 편집숍 ‘더콘란샵’이 영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한국에 12번째 매장을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오픈한다. 세계 12개 매장 중에 가장 큰 3305㎡(1000평) 규모로 들어서는 더콘란샵은 1층과 2층이 각기 다른 콘셉트로 꾸며졌다.

1층은 제품의 색을 돋보이게 하는 최적화된 디자인, 실험실 느낌의 화이트 콘셉트를 적용했다. 여기에 벽면은 통유리로 구성했는데 더콘란샵은 벽면에 제품을 진열하는 여타 리빙 편집숍과 달리 통유리로 들어오는 빛이 매장 전반을 환하게 비춘다. 또 벽면 구석구석 작품을 전시해 공간을 생동감 있게 꾸민 점도 눈에 띈다.

1층은 비교적 가격대가 저렴한 상품들로 구성됐다. 향수, 캔들, 디퓨저 등 홈데코 상품을 비롯해 주방, 음향 가전, 육식용품, 아트소품, 기프트 상품들이 갖춰진 토털 라이프 스타일 층으로 꾸며졌다. 매장 한쪽에는 더콘란샵의 창시

자 ‘테렌스 올비 콘란’ 경의 중간 이름을 딴 영업면적 약 165㎡(50평)의 ‘올비(Orby)’ 카페가 운영된다.

2층은 클럽(CLUB) 라운지 느낌으로 구성됐다. 1층이 화이트 콘셉트로 환한 분위기라면 2층은 경건하면서 무거운 느낌을 자아낸다.

서로 다른 콘셉트인 1, 2층을 연결하는 푸른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VIP 룸이다. 99㎡(30평) 규모의 VIP 룸은 고객 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인데, 창시자 ‘테렌스 올비 콘란’ 경의 취향을 반영해 꾸며졌다.

1층이 홈데코 상품이 위주였다면, 2층은 가구, 조명, 텍스타일, 서적, 오픈 키친 등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상품들로 꾸며졌다. 조명은 제품이 아닌 바닥에 빛을 향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소파 등 가구를 체험할 때 눈이 부시는 불편함을 없앴 것이다. 대신 조명만 모든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

차분한 분위기의 2층 공간이지만, 화장실만큼은 생기발랄하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알록달록 타일을 구성해 눈에 띄는 화장실 공간을 선보였다. 매장 어디를 둘러봐도 ‘인스타그램머블(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사진 찍기 좋은 것들로 구성했다는 뜻의 신조어)’한 공간을 자랑한다.

더콘란샵에는 스위스 가구 ‘Vitra(비트라)’, 핀란드 가구 ‘Artek(아르텍)’, 덴마크 가구 ‘칼 한센(Carl Hansen & Son)’과 미국 가구 ‘놀(Knoll)’ 등 유명 가구 브랜드가 들어선다. 또 프랑스 오디오 ‘라부아프(LaBoite)’, 덴마크 조명 ‘루이스폴센(Louis Poulsen)’ 등 차별화된 디자인과 품질을 선보인다. 전체 상품의 30%는 자체 제작 브랜드다.

한편 ‘더콘란샵’은 1974년 영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테렌스 콘란(Terence Orby Conran)’ 경이 설립한 편집숍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3개국에 총 11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박미선 기자 only@

라면도 ‘비건’ 붐... 오뚜기 ‘채황’ 출시

10가지 채소 국물 담백... 감자전분으로 쫄깃한 면발

비건 열풍에 채소라면까지 등장했다.

오뚜기는 10가지 채소를 사용해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구현한 채소라면 ‘채황<사진>’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뚜기 ‘채황’은 버섯, 무, 양파, 마늘, 양배추, 청경채, 당근, 파, 고추, 생강 등 10가지 채소에서 우리나라는 깔끔하고 담백한 채소 국물 맛이 특징으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채황’의 면은 감자전분을 사용하여 부



드럽고 쫄깃하다.

스프에는 표고버섯과 된장을 넣어 풍미를 높였다. ‘채황’의 건더기는 건양배추, 건청경채, 건표고버섯, 실당근, 건파, 건고추 등 총 6종의 풍부한 채소건더기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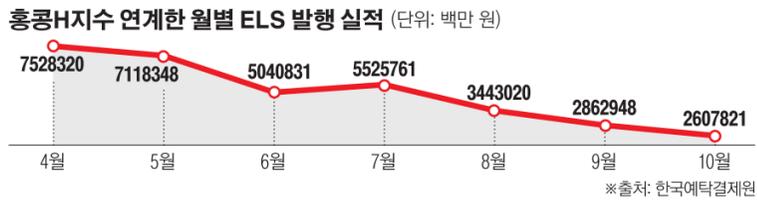
오뚜기 관계자는 “채식 트렌드와 함께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다양한 제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며, “오뚜기 ‘채황’은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주간연계증권〉

롤러코스터 타는 홍콩H지수... 속 타는 ELS 투자자

시위 격화·美中 협상 불확실성에
일주일 만에 4.8% 빠져
투자자 손실 가능구간 진입 우려
전문가 "원금손실 가능성은 없어"



세를 취소하기로 했다는 중국 발표가 나오면서 10960.81까지 올랐던 홍콩H지수가 일주일 만에 4.8% 빠졌다.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이 기대보다 진전 속도가 느린 점이 증시 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홍콩은 시위 격화로 경찰이 쏜 실탄에 시위대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콩 행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고 있다. 또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뜻밖의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불확실성을 더했다. 12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무역협상에 관

추락하면 원금 100%를 날릴 수도 있는 구조다. 실제 2015년 당시 홍콩H지수는 4개월 만에 1만1000포인트에서 1만5000선까지 올랐다가 이후 7900선으로 급락하며 대규모 손실 사태를 유발한 바 있다. 증권사들은 홍콩H지수에 연계한 ELS 발행을 줄이고 있다. 불안하게 움직이는 홍콩 증시 대신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홍콩H지수 연계형 ELS의 발행 규모는 지난해 동월보다 27.5% 감소한 2조6078억 원에 그쳤다. 8월(3조4430억 원)부터 전달 대비 크게 감소(-37.7%)하기 시작하면서 3개월 연속 줄어든 결과다. 이종호 KB증권 연구원은 "홍콩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홍콩H지수에 연계한 상품 비중은 줄어들고 유로스톡스(EUROSTOXX) 50지수나 S&P 500지수에 연동한 상품 비중은 증가했다"

며 "실제 S&P500지수나 유로스톡스50지수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동안 홍콩H지수는 변동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홍콩H지수 연계형 ELS의 미상환잔액은 40조531억 원이다. 전문가들은 홍콩 증시가 2015년 때처럼 75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원금손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종호 연구원은 "홍콩H지수 수준이 아직까진 녹인 구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실제 ELS에서 녹인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연구원은 "H지수의 1차 지지선은 9700포인트 정도"라며 "24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캐리 램 행정장관이 취소하게 되면 시위가 더욱 고조될 수 있고 이에 글로벌 자금의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 상장한다면 하락 압력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적자 관리종목’ 8개사, 3분기 성적표는

에이치엘비파워·디지털옵틱
흑자전환에 관리종목 탈피 눈앞
6개사는 상반기까지 영업손실
자산 매각 상폐 위기 탈출 안간힘

4년 연속 적자 관리종목	반기 기준 실적
알톤스포츠	영업손실 25억
내츨엔도텍	영업손실 26억
디지털옵틱	영업이익 45억
유아이디	영업손실 9억
에이치엘비파워	영업이익 30억

3분기 실적 발표 마감을 앞두고 4사업연도 연속 적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의 실적 추이가 주목된다.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월 4사업연도 연속 적자를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알톤스포츠, 내츨엔도텍, 디지털옵틱, 유아이디, 국순당, 에이치엘비파워, 스킵스테크놀로지, 솔고바이오 등 8개사다. 코스닥 시장 규정상 별도 재무제표 기준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나오면 자동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3분기 누적 적자상태인 관리종목들은 상장폐지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4분기에 누적 영업손실을 모두 상쇄할 만한 실적 반등 계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적자 상태로 1년 장사를 끝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디지털옵틱은 이날 분기보고서를 통해 별도 기준 3분기 누적 매출액이 529억400만 원, 영업이익이 56억8400만 원을 기록

23억 원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유아이디(-9억 원), 솔고바이오(-14억 원) 등도 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적자를 낸 기업들은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류자산 매각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알톤스포츠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일대 토지·건물을 105억 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고, 유아이디도 9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토지를 75억 원에 팔았다. 두 회사 모두 매각 목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들었다. 관리종목에서 탈피하면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만큼,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 관심도 높아지는 시점이다. 실제로 올해 흑자를 기록한 적자 관리종목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뛰었다. 에이치엘비파워의 주가는 현재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시기와 비교하면 2배가 넘게 올랐다. 디지털옵틱 주가도 500원대에서 900원 대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는 한 상장사의 IR 임원은 "3분기 실적이 나오면 한 회사 1년 장사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다"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급락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탈피 가능성이 보이는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국내외 부실 계열사 수백억 지원 이수페타시스, 재무 안정성 '흔들'

상반기 매출·영업익 늘었지만
유보율 줄고 부채비율은 증가



PCB(인쇄회로기판) 제조·판매 업체 이수페타시스가 부실 계열사 지원에 등골이 휘고 있다. 본사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지만 국내외 계열사 부진에 본사의 재무 안정성도 훼손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수페타시스는 8일 이사회를 열고 이수액 사보드에 250억 원, 이수페타시스 아시아에 140억 원 등 총 39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종속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증자다. 이수액사보드는 모회사가 2004년 자본금 100%를 출자해 설립했다. 이듬해 매출 210억 원에서 10여 년 지난 2016~2017년에는 2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규모를 키웠다. 반면 수익성은 급감해 지난해에는 100억 원대 영업손실이났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작년보다 반절로 줄어든 719억 원에 71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 4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수액사보드에 대한 지원은 앞서 2008년에도 있었다. 당시 3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50억 원을 현금 출자했다. 당시 부채비율은 176%에 달했다. 조만호 기자 spdran@

국내 계열사보다 더 심각한 곳은 중국 법인이다. 이번에 증자로 지원하는 이수페타시스아시아는 후난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다. 후난법인은 중저층 제품, HDI, 전장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현재는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 상품 수를 줄이고 인력 감축 등도 진행하는 등 적자 축소에 주력하는 곳이다. 이수페타시스는 별도 기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보다 신장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지만 자회사 부진에 재무 안정성도 조금씩 훼손되는 추세다. 종속기업 손실에 따른 순손실로 이익잉여금이 줄면서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2015년 69.6%에서 올 상반기 109.1%로 늘었다. 또 400%를 넘던 유보율은 300%대 초반으로 낮아졌고 순차입금비율은 30%대에서 50%대로 올랐다. 조만호 기자 spdran@

〈기업 PR〉

거래소, 투자 정보 '스마일' 누적 접속 30만건 돌파

한국거래소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출시한 스마일 홈페이지가 개설 후 누적 접속 건수 30만을 돌파했다. 스마일 홈페이지는 기업분석 리포트, 기업종합정보, 투자분석정보, 공시정보, 사이트라이브러리, 전종목 시세판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투자 관련 정보가 분산돼 있어 어려움을 겪던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 가능해졌다. 특히 기업분석 리포트는 소외된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기술분석 보고서와 미래 성장성 및 투자자 관심이 높은 유망산업에 대한 산업테마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



다. 기업 성장성과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유용한 정보들을 이곳에서 얻

을 수 있다. 또 투자분석 정보는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 데이터 및 재무 데이터를 결합하여 가공한 정보로 투자 판단에 유용한 고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능력이 열위에 있는 개인투자자들도 전문적인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거래정보(가격유사도 분석, 수익률 상관관계, 거래량 기중평균가격), 기타참고정보(이벤트 효과분석, 기업별 주요 변동사항), 상장사 사업내용, 시장경보정보(투자주의 및 경고)도 통합 제공하고 있다.

빗썸 지수 (2019년 11월 14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22,200	-11,600 (3.5%▼)	모네로	75,300	1,500 (2.0%▲)
리플	313	-5 (1.6%▼)	비트코인골드	9,650	-210 (2.1%▼)
라이트코인	69,400	-1,550 (2.2%▼)	이더리움클래식	5,610	-80 (1.4%▼)
대시	80,400	-1,350 (1.7%▲)	퀀텀	2,666	53 (2.0%▲)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비수기 잇은 연말 분양시장...서울 2만 가구 쏟아진다

상한제 시행 앞두고 분양 앞당겨
11·12월 분양 작년 3배 '홀쩍'
전국 10.6만 가구...수도권 64%
청약가점 50~60점대 주상복합 공략
30~40점대는 경기·인천 노려야

올겨울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에 '큰장'이 선다. 통상 11월과 12월은 분양 비수기로 통하는데도 올해는 이 기간에 적지 않은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내년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주요 단지들이 분양 시기를 앞당긴 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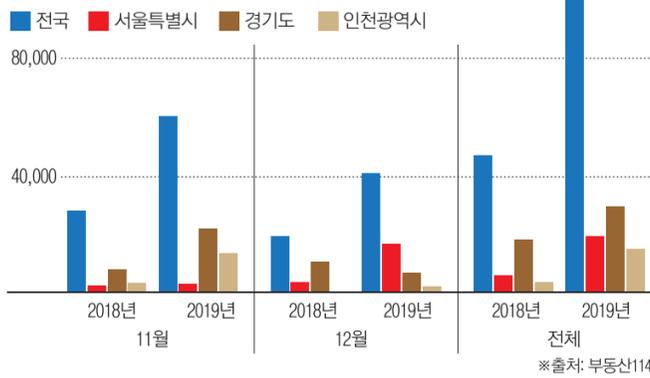
연말 신규 분양 물량이 많은 만큼 청약가점 고점자가 아닌 청약 대기자도 '당첨'이라는 행운을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서울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1만941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5780가구)보다 3배 이상 많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각각 2만 9535가구와 1만523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

서울 연내 주요 분양예정단지 (단위: 가구)

위치	아파트	총 가구수
서대문구 홍은동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 (홍은2주택재건축)	623
	남가좌동 DMC금호리첸시아	450
용산구 효창동	효창파크뷰데시앙	384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천호역트리스	160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	11,106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개포주공4단지)	3,343
용산구 이촌동	이촌현대리모델링(타샵)	750
서대문구 홍은동	e편한세상홍제가든플라츠	481
종로구 면목동	면목4구역	243

수도권 11·12월 분양 물량 비교 (단위: 가구)



연말 분양시장 청약 당첨 공략법

-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목받는 지역은 피하자
- 인기가 높은 전용 59·84㎡보다 전용 62·74㎡를 눈여겨 보자
- 청약가점 고득점자가 몰릴 것 같은 지역은 피하는 눈치작전은 필수

다. 작년 동기 물량인 1만8383가구, 3674가구보다 수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올 연말까지 10만616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작년(4만7059가구)보다 2배 이상 많다. 10만여 가구 가운데 수도권(6만4187가구)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3.8%로 절반 이상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아파트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를 비롯해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

한신더휴' △서대문구 'DMC 금호 리첸시아' (가재울9구역 재개발 단지) △용산구 '효창 파크뷰 데시앙' (효창6구역 재개발 단지) △영등포구 '신길 더샵 프레스티지' (신길3구역 재개발 단지) 등이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연내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분양은 내년 초에나 이뤄질 것으로 현지 부동산 중개소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만큼 대기 수요자들이 전략적으로

청약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른바 '눈치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신규 분양 물량이 줄고 청약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올 연말에 나오는 분양 물량을 잡으려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미 분양기를 통제하고 있어 연내 선보일 단지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다는 것도 청약 경쟁을 부추길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청약 전략을 짜는 일이 중요해졌다. 청약가점(84점 만점)이 70점대 중반 이상이라면 당첨 안정권에 들 수 있는 만큼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청약에 나서게 좋다.

하지만 청약가점이 50~60점대로 아주 높지 않은 청약 예정자들은 올 연말 분양 물량을 노리되, 청약 고점자가 몰릴 것 같은 분양 단지는 피하고 당첨 가능성이 큰 물량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강남권을 비롯한 '마용성' (마포·용산·성동구) 단지에서는 고점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중간접수 청약 가점자들은 강남권, 마용성 지역이 아닌 그 외 서울지역의 소규모 단지나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59·84㎡보다 전용 62·74㎡ 같은 소위 '깎면적'의 주택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은진 팀장은 "청약가점이 30~40점대로 인기 단지 당첨이 쉽지 않거나 높은 청약경쟁률을 우려하는 실수요자라면 경기·인천권 분양 단지를 노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KB 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가족 모두 건강해야 하니까 희망 가득 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날을 살아갑니다
아픈 날도, 아프지 않은 날도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를 든든하게 케어해주는
건강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생활 속 다양한 보장과 케어를 하나로!
☎ **KB The드림365건강보험**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2125호 (2019.01.07)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센터: 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B 손해보험

들쭉이는 강남 전셋값...정부가 기름 부었다

분양가 상한제·정시확대·자사고 폐지 영향 강남 3구 크게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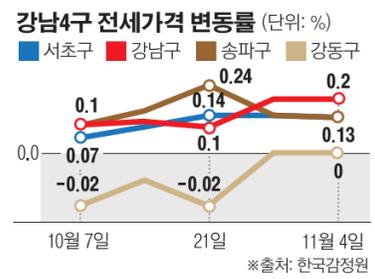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강남지역은 고등안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로 전세 수요가 늘며 전셋값이 오르긴 했으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의 얘기다. 정부 정책이 강남 전세시장을 들쭉이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며 19주 연속 상승세를 탔다. 특히 서울 강남(0.20%)·서초(0.13%)·송파구(0.13%) 등 강남3구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한국감정원 측은 "전체적으로는 가을 이사철 마무리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안정적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그러나 강남 등 학군 및 입지가 좋은 일부 인기지역은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며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새학기 대비 학군이 좋은 강남권 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계절적 수요보다는 정부 정책의 영향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는 예년 이맘때보다 전세 문의가 크게 늘면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며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 및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이 전세 수요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가깝고, 강남8학군 명문 학교가 인접해 있는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84㎡는 전세 호가가 최근 15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한 달 전보다 1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문선영 기자 moon@

현대건설, 조경분야 최고 권위 'IFLA' 우수상

아모레퍼시픽 '가든즈'로 수상

현대건설은 세계 조경분야 최고 권위의 '2019 세계조경가협회(IFLA) 어워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화도시 경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IFLA는 1948년 창설해 현재 71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한 전 세계 조경업계의 대표 기관이다. 매년 회원국의 건축물 중 환경의 질적 이익 증대에 기여한 공공 또는 민간환경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한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우수상을 수상한 작

품은 지난해 완공한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의 옥상 조경인 '가든즈(Gardens)'이다.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은 서울 용산 도심에 위치한 대형 오피스 건물로,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한 독특한 재질의 하얀색 마감이 특징이다.

현대건설 조경디자인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과 다에이치아너빌에서 선보인 최고급 디자인의 조경 상품을 더욱 발전시켜 강남3구역 재개발 단지인 '한남 디에이치 더 로얄'에도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피의자' 조국, 檢 출석... 진술 거부권 행사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항소심서 집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일지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16일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
20일	조 후보자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및 교고 의혹 논란 1차 논란
27일	검찰,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9월 4일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6일	지명 28일 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기소
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격 임명
14일	조국 5촌조카 귀국, 검찰, 구속영장 청구
23일	조국 자택 압수수색
10월 31일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조사
9일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안 발표 후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
21일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23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4일	정경심 교수 구속
11월 11일	정경심 교수 구속 기소
14일	검찰, 조국 전 장관 소환

가족 비리 수사 79일 만에 소환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등 부인 정경심과 4개 이상 혐의 겹쳐 "일일이 답변하는 것 구차하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인 14일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8시간 가량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측 변호인단은 조사가 끝난 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진술 확보를 위해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11일 구속기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 중 4개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의 수사는 조 전 장관의 뇌물죄 성립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부인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거둔 부당이득과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정 교수의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 매수와 관련한 부당이득을 2억8083만 원으로 봤다. 만약 WFM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넘겼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를 인지하고 개입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수천만 원을 정 교수에게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더불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의심한다.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된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도 연결돼 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8월 20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WFM 주식 110만 주(4.28%) 전량을 담보로 제공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서도 검찰의 구형(벌금 3000만 원)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9부(재판장 이일엽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내린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고용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한 수단을 강구했다"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장녀와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남편마저 사망하는 아픔도 겪어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2016년 7월과 2017년 7월 각각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항공운수 종사자인 것처럼 꾸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김중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덕유산 수놓은 은빛 상고대 14일 전북 무주군 국립공원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 일대에 올라가 첫 상고대(나무서리가 맺혔다. 사진제공 덕유산 향적봉대피소

'신생아 백신 담합' 제약·유통사 10곳 압수수색

비싼 경피용 BCG 판매 늘리려 무료인 피내용 공급 중단

제약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오후부터 제약·유통업체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한국백신·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과 유통업체 우인메디텍·팜웰드 등 10여 곳이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일부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장기간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5월 공정위는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거룩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힘겨운 삶에 지친 이들을 위한 철학 처방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철학이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 속에만 있다"

쇼펜하우어, 헤르만 헤세, 조르주 장 르누아르, 김 지크 루소, 베토벤, 슈만...

역사 속 철학자와 문학자의 삶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의 저자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엮어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2019년 11월 15일 | 160페이지 | 15,000원

출판사: 도서출판 창비 | ISBN: 978-89-551-1111-1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 초빙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에 의거 산업기술혁신계획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우리나라 산업기술 R&D 지원체계 효율화와 국가산업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주실 단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 직위 및 임기**
 - 공모 직위 : 단장 (비상근)
 - 임 기 : 임용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해 연임가능)
- 지원 자격**
 - 산업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 기업경영이나 기업 연구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기술사·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출 서류**
 - 지원서·이력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A4용지 3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A4용지 3매 이내) 1부
 - * 소정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참고
 -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기타 실적증빙 등의 자료는 서류(면접) 심사 후 최종 추천된 후보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제출방법·기한 및 제출처**
 - 제출방법 : ①방문 또는 ②등기우편, ③이메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9. 11. 14(목) ~ 2019. 12. 13(금) 18:00까지
 - * 방문제출시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 * 이메일 및 등기우편의 경우 제출 마감일('19.12.13.)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우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필요
 - * 이메일 제출은 자필서명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제출
 - 제출처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 이메일 : recruit@keit.re.kr
- 심사 방법**
 - 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심사결과 개별 통보)
 - *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심사결과 개별 통보)
- 기타 사항**
 - 산업기술 유관기관 등의 추천방식을 병행합니다.
 - 제출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단장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촉권자가 단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 추천위원회(기획예산팀, ☎053-718-8517)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eit.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14.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 추천위원회 위원장

주말에 어디 갈래? 스누피 달 착륙 50주년 기념 한국 특별전



▶신모래 'Dancing on the Moon'



스누피, 50년 전 달에 다녀 왔대요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닐 암스트롱(1969)

롯데뮤지엄이 반세기 전 달 착륙의 순간을 함께한 스누피를 매개로, 인류의 원대한 꿈이 펼쳐지는 우주에 대한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 스누피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피너츠는 이제 곧 70세를 맞는다. 시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작은 개와 광활한 우주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까.

찰리 브라운과 그의 반려견 스누피 등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로 시작된 피너츠는 1950년부터 50년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신문 매체에 연재되며 기네스북에 올랐다. 인기 절정의 두 주인공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는 1969년 아폴로 10호의 사령선과 달 착륙선의 콜 사인(호출 부호)이 됐다. 같은 해 출발한 아폴로 11호는 인간의 달 착륙을 실현했다.

“행복은 포근한 강아지”라는 찰스 솔츠의 말에서 알 수 있듯 피너츠 속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희망이 담겨있다. 롯데뮤지엄은 피너츠를 현대미술과 패션으로 풀어냈다. 롯데뮤지엄은 “삶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탄생한 스누피를 재해석한 예술가들의 시선을 통해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소개했다.

◇스누피와 NASA, 달을 향해 저 멀리 더 높이 = 롯데뮤지엄은 1969년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의 달 탐사라는 역사적 사건을 자세히 보여주는 찰스 솔츠 뮤지엄의 특별 전시를 최초로 공개한다.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순회하고 있는 ‘To the Moon: Snoopy Soars with NASA’는 냉전시대였던 1960년대, 소련의 우주 계획에 대항해 시작된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아폴로 프로젝트를 자세히 보여준다.

무모하게만 보였던 우주 탐사의 꿈을 실현한 아폴로 프로젝트 당시의 사료들과 솔츠만의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달 탐사에 대한 오리지널 코믹스트립을 함께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1968년 시작된 ‘우주비행사 스누피(Snoopy, the Astronaut



박승모 'Maya'.

‘스누피’ 1969년 달 착륙 리허설호 콜 사인 같은 해 출발 아폴로 11호 달에 첫발 스누피와 함께한 달 착륙 역사 미술로 풀어 19명의 한국 작가들 100여점 전시

’ 프로그램부터 스누피가 아폴로 10호를 거쳐 나사의 ‘세이프티 마스크트(Safety Mascot)’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아폴로 10호의 콜 사인,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 = 인간은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경외와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달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7월, 미국은 기적처럼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준비를 마쳤다. 미국항공우주국 NASA는 달 표면에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기 전 ‘최종 리허설’로 아폴로 10호를 먼저 쏘아 올린다.

1969년 5월, 아폴로 10호의 지휘관 토머스 스테포드와 사령선 조종사 존 영, 그리고 달 착륙선 조종사 유진 서난은 아폴로 11호의 성공적 달 착륙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먼저 달로 떠난다. NASA의 관례에 따라 아폴로 10호의 조종사들은 그들이 타고 갈

우주선의 콜 사인을 정할 기회를 얻게 됐다. 토머스 스테포드는 달의 곳곳을 탐사하고(snoop around) 연구하기 위한 임무에 걸맞게 달 착륙선에 ‘스누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한다. 또한 사령선은 유진 서난이 존 영에게 붙여줬던 별명인 ‘찰리 브라운’으로 명명했다.

◇세이프티 마스크트, 스누피 = 1967년 1월, 우주비행사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폴로 1호의 비극적인 화재는 미국의 우주 계획과 직원들의 사기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NASA는 안전 의식을 높이고 항공우주산업에 종사하는 협력사들에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NASA 유인우주센터의 공보실 부실장 앨버트 잭슨은 NASA의 세이프티 마스크트로 찰스 솔츠의 캐릭터 스누피를 채택하지는 아이디어를 냈다. 1968년 3월 ‘우주비행사 스누피’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NASA의 세이프티 마스크트가 탄생했다.

◇신작, 피규어, 런웨이... 다양한 볼거리 = 이번 전시에서 한국 최초로 전시되는 찰스 솔츠 뮤지엄의 ‘To the Moon: Snoopy Soars with NASA’는 스누피와 함께한 달 착륙의 역사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현대미술을 이끄는 19명의 한국 작가들이 제작한 100여 점의 신작을 본다.

롯데첨단소재의 지원으로 제작된 스누피 아트 피규어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인 에버모인 ABS로 제작됐다. 흰색과 검은색의 똑같은 스누피 피규어들이 예술가들의 개성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된다.

‘스누피 런웨이’에는 윤준호(YCH),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 등 13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해외작가로는 케니 샤프(Kenny Scharf), 앙드레 사라이바(Andre Saraiva)가 참여해 스누피 달 탐사를 기념하는 신작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이 모든 것은 2020년 3월 1일까지 롯데뮤지엄에서 만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ksh@

일어두는 미술 tip

서울옥션이 국내외 거장의 조형미를 담은 작품들을 들고 홍콩으로 간다. 총 68점, 낮은 추정가 약 143억 원(9552만 3000홍콩달러) 규모로, 마르크 샤갈부터 백남준, 박서보 등 미술계 거장들의 작품이 경매에 입찰 된다.

서울옥션은 24일 오후 4시(현지시간) 홍콩 그랜드하얏트 살롱에서 제31회 서울옥션 홍콩세일을 연다.

◇국내외 거장의 조형미를 담다 = 이번 경매에서는 국내외 거장의 조형미를 살펴볼 수 있는 입체 및 평면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마르크 샤갈의 ‘파리의 풍경(Paysage de Paris)’은 자유자재로 색채를 다루며 그 안에 인생과 사랑을 담아낸 샤갈의 예술혼을 확인할 수 있다. 샤갈이 즐겨 사용하였던 푸른색은 작품의 배경에서 흰색에 가까운 은은한 톤으로 바뀌어 작품 전체에 화사함을

샤갈의 ‘파리의 풍경’ 새 주인 만날까

24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살롱서 ‘제31회 서울옥션 홍콩세일’

부여한다. 크기 역시 131.5cmx162.3cm로, 그의 대다수 작품과는 달리 초기 러시아 시기에 그렸던 대작들과 같은 큰 사이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는 한국적 서정주의를 서구의 모더니즘에 접목해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정립한 작가다. 현재 한국 근현대 작가 중 최고 가격의 경매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경매에 출품되는 김환기의 1972년작 ‘18-II-72 #221’은 점, 선, 면으로 대치돼 내밀한 서정적 세계의 심화를 보여준다. 녹색을 주조색으로 해 두 개의 부채꼴 패턴으로 구성된 작품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을 주면서도 패턴의 비율과 방향, 채색 순서에 변화를 주어 다채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김환기의 또



마르크 샤갈 '파리의 풍경'.

다른 작품 ‘무제 Untitled’도 나왔다. 이우환의 1978년 작 ‘선으로부터 From Line’도 볼 수 있다. 기존의 조각과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린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선구자 백남준의 1998년작 ‘티비 첼로 TV Cello’도 이번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는다.

◇한국의 추상 미술 = 서울옥션은 이번 홍콩경매에서 1945년 이후 한국 추상 미술의 발전을 엿볼 수 있는 색션을 준비했다. 한국 추상 미술의 흐름을 주도해 온 근현대 작가의 작품도 출품된다.

그중 묘법 시리즈로 널리 알려진 박서보의 작품 ‘묘법 No.60-78 Ecriture No.60-78’은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신체적 행위를 통해 완성된 작품이다. 어린아이들의 서툰 글쓰기에서 착안해 탄생한 묘법 시리즈는 총 3개의 시리즈로 구성됐다.

전광영의 ‘집합 16-OC083 Aggregation 16-OC083’은 삼각형 조각을 한 지에 싸고 묶은 작품으로, 각양각색의 한 지 조각들은 따로 구성됐으나 결국 끈으로 맺어지는 집합의 과정을 보여준다. 전

광영은 삼각형 조각을 한지에 싸고 묶어, 다양한 농도와 채도로 염색한 오브제를 이용해 집합이라는 독자적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그의 작품은 영국 대영박물관과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회화의 평면성’을 실현하기 위한 탐구와 실험을 지속해온 작가 최명영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중국 현대 미술작품 다수 출품 = 리우예의 2005년작 ‘집으로 가는 길 The Long Way Home’은 은화한 색감과 완벽한 균형을 이룬 구성이 돋보인다. 눈이 쌓인 푸른 배경 속, 노인의 손을 꼭 잡은 머리에 흰 눈을 얹고 정면을 응시하는 아이와 재촉하듯 뒷걸음질치는 강아지가 등장하는데, 마치 동화 속에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제31회 서울옥션 홍콩세일 서울 시사회는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이달 17일까지, 홍콩 현지는 홍콩 그랜드 하얏트 살롱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관람은 무료다.

김소희 기자 ksh@



대한민국 블루스계의 전설 같은 남자
그러나 이런 표현을 싫어할 아티스트
신촌블루스 엄인호가 주인공이다.
1980년대 언더그라운드를 휘어잡던
신촌블루스의 리더인 그는 여전히
블루스 기타리스트로서 음악을 계속하고 있다.

엄인호는 데뷔 40주년을 맞아 이달 23일 홍대 하나투어 브이홀에서 원년 멤버인 이정선·한영애와 신촌블루스 공연을 할 예정이다.

“떠난 김현식을 그리며, 원년 멤버 다시 한무대에”

‘신촌블루스’ 리더 엄인호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천성 때문일까. 은자(隱者)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를 찾아 공연 전 술자리에서 막걸리 한잔과 함께 만났다. 한국 가요사를 말할 때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밴드가 있다. 이름 그대로 신촌 지역에 거점을 잡고 1980년대 언더그라운드를 휘어잡았던 신촌블루스는 가요와 블루스의 결합이라는 실험을 통해 다수의 명반을 만들었다. 김현식, 이정선, 한영애, 이광조, 강허달림, 이은미 등 한국 가요사에 목격하게 새겨진 이름들이 한 번씩 거친 밴드이기도 하다. 신촌블루스에는 ‘아쉬움’, ‘골목길’, ‘그대 없는 거리’, ‘이별의 종착역’ 등 들으면 잊히지 않는 노래를 부른 네임드 멤버들이 있다. 엄인호는 바로 그 핵심 인물이다.

언더그라운드의 전설, 그리고 40년

엄인호를 만난 것은 10월 3일. 서울 청파동 코리아블루스씨어터 공연을 앞둔 시간이었다. 그가 씩 웃으며 막걸리 한 잔을 따랐다. 공연 전에는 물과 술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는 술을 마셔서 그런가... 눈이 유난히 초롱초롱했다.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해서 시력이 좋아졌는데, 안경을 벗으면 내 이미지가 아니라 안경을 쓰는 거지.”

영원한 청춘처럼 보였던 그도 나이를 먹긴 먹었다. 물론 동료들도 함께.

“(신촌블루스) 멤버들과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요. 각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 친구는 지방에서, 한 친구는 서울에서 가게를 합니다. 기타리스트 노병기는 자기 블루스 밴드가 있는데 이번 라이브 녹음을 위해 세션으로 초대했죠.”

‘장발 전과 27번’이 만든 새로운 음악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김도향 등이 포진해 있던 명동의 씨시봉이 포크로 1970년대 가요계를 휘어잡는 동안 신촌은 변방이었다. 그리고 변방인 만큼 마이너리티들이

모이는 지역이 됐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양친을 잃고 독학으로 기타를 배운 엄인호 또한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중현 노래를 듣고 음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974년에는 부산에 내려가 DJ 생활을 하다 그 후 전국을 유랑하며 한국형 히피로 살았다. 히피족 같았던 장발은 그를 ‘장발 전과 27번’으로 만들었다. 그 당시는 “거의 유치장에서 살았다”며 웃으며 추억한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같은 장발이다.

1979년, 엄인호는 이광조, 이정선과 함께 ‘풍선’이라는 이름으로 데뷔 앨범을 발매했지만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박동률, 라원주, 양영수 등 신촌 멤버들과 함께 ‘장끼들’이라는 밴드를 만들었으나 큰 반응을 얻지 못했고 3년여의 활동 후에 해체됐다. 그리고 1986년, 신촌블루스가 탄생한다. 이정선, 이광조, 한영애와 함께 신촌의 레드 제플린이라는 카페에서 활동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인기가 있어서 관객이 점점 많아졌고 지인들의 권유로 동송동 파랑새 소극장을 빌렸어요. 당시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계단에 앉아서 보기도 하고 그럴 정도였죠.”

그렇게 언더그라운드의 전설이 시작됐다. 1집을 성공시킨 뒤 2집은 개그맨 전유성의 소개로 알고 지냈던 김현식이 참여해 또 명반을 만들어냈다. 신촌블루스는 엄격하게 조직된 밴드가 아닌 다소 느슨한 공동체처럼 운영됐다. 멤버들이 수시로 바뀌었고 보컬과 여러 명의 객원 보컬들이 동원됐다. 그랬기 때문에 이질적인 성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엄인호와 이정선만 봐도 그렇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만남과 이별을 거듭하며 음악적 자장을 넓혔다.

“저를 성장하게 한 사람은 이정선 씨죠. 악보에서부터 여러가지를 배웠으니까요. 악보 보는 법을 몰랐거든.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거 나 죽으라는 노래냐?”
“전에 발표했던 ‘이별의 종착역’을 블루스로 꼭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촌블루스 3집에 신기 위해 김현식에게 죽기 얼마 전에 불러 달라고 부탁하니 김현식이 ‘이거 나 죽으라는 노래냐?’ 하더라고요. (웃음) 그런데 흔쾌히 허락했어요. 가사만 알려 달라고 하고 스튜디오에 아들과 함께 와서 한 번에 불렀죠. 김현식에게 그런 매력이 있었어.”

엄인호는 아련한 듯 김현식을 추억했다. 생각해 보면 그를 거쳐간 가수가 참 많았다. “현식이, 한영애, 정경화, 이은미 등등 정말 준비된 가수들이었죠. 나는 오버하는 가수는 싫어해요. 멋 부리지 않고 자기 색깔대로 부르는 가수가 멋지다고 생각해요. 연주도 그렇죠.”

자연스럽고 절제된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그.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었다.

뮤지션에 대한 관객들의 예의
엄인호의 아들인 엄승현도 현재 세션 기타리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아들의 실력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런데 나하곤 일을 안 하려고 해. 야단 맞으니까. (웃음) 가끔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거절하더라고요. 뭐 음악이라는 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는 자신처럼 라이브 공연으로 살아가는 후배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본이나 해외 어디든 가서 공연하면 관객이 너무 부러워요. 뮤지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 관객이 밴드를 최대한 응원하고 자극하면 더 즐거운 공연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관객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 전 클럽에서 연주를 하는데, 관객 중 한 명이 갑자기 무대로 올라왔다고 한다. “‘골목길’은 내가 더 잘 불러” 하면서. 우리나라 공연 문화가 아직 다른 나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신촌블루스 원년 멤버 공연
현역으로서, 그는 데뷔 40주년을 맞아 11월 23일에 그의 음악적 고향 신촌에서 한

발 떨어진 홍대 하나투어 브이홀에서 신촌블루스 공연을 하기로 했다. 이번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원년 멤버인 이정선과 한영애가 함께 자리하기 때문이다.

“11월에 제 생일이 있기도 하고... 김현식이 떠난 달이기도 한데, 그때가 되면 기분이 가라앉고 방황하게 되니까, 올해가 마침 데뷔 40주년이니 공연이나 해야겠다 싶었어요. 김현식과 함께 불렀던 노래 ‘바람인가 빗속에서’, ‘이별의 종착역’을 불러볼까 해요. 한영애, 이정선 씨도 함께하기로 했는데, 사실 귀찮아요. 그 친구들 나오면 연습도 따로 해야 해서요. (웃음) 그래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현식이를 추모하며 그간 서운한 감정 있으면 다 없애고 가끔 이렇게 멍치자고 하고 싶어요.”

과거 신촌블루스의 면모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된다.

고2 때 신중현에 반해
‘뮤지션의 길 가자’ 결심
DJ생활하다 전국 유랑도

이정선·한영애 등 뭉쳐
1986년 신촌블루스 결성
김현식 합류하며 전성기

올해로 데뷔 40주년
‘나만의 음악 하고 싶다’
여전히 목말라 있지요

자연스럽게 살다 가고 싶다
덤덤하게 사는 그는 딱 하나,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다.

“여태까지 다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못해본 게 있는 거 같아요. 또 음악이지. 히트곡?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엄인호다운 것.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음악적으로 세련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게 내 생각대로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

그에게 남아 있는 단 하나의 꿈이란 것도 결국 음악이었다. 엄인호는 신촌블루스 안에서 더욱 빛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주도한 그는 우리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을까.

“날 기억해 달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 가자. 그거면 돼요.”

기슴에서 흑 뜨거움이 쳐 올라와 냉큼 막걸리 잔을 비웠다. 공연이 끝난 후 우리의 술잔은 다시 못다 한 이야기와 함께 넘쳐들었다.

글/김영순 기자 kys0701@

사진/오병돈 프리랜서 obdlife@gmail.com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_{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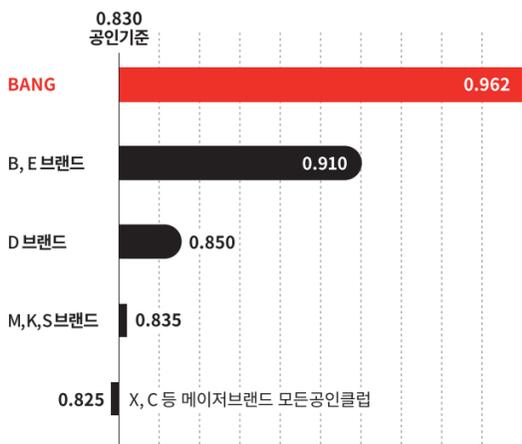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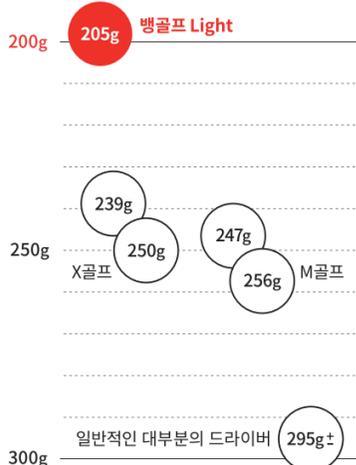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로스트아크, 대기열 숫자 보며 속 타들어갔죠”

‘대한민국 게임대상’ 6관왕...지원길 스마일게이트RPG 대표

초반 폭발적 인기, 기다려준 유저들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
PC 온라인 게임만의 컨트롤·몰입감...보여줄 것 아직 많아

“로스트아크가 유저들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평을 듣는 게임이 되기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길 스마일게이트RPG 대표가 로스트아크를 통해 국내 PC온라인 게임의 자존심을 지켰다. 로스트아크는 13일 진행된 ‘2019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인 대상을 포함해 기술창작상의 ‘기획/시나리오’ 부문과 ‘사운드’ 부문, ‘그래픽’ 부문, ‘캐릭터’ 부문 등 4가지 부문을 모두 석권했다. 또 일반 이용자들이 투표하는 ‘인기게임상’까지 받아 총 6관왕을 달성했다. 이번 게임대상 시상식에 PC 온라인 게임 부문에서 유일한 출품작이었던 로스트아크는 대상을 수상하며 명맥이 끊길 뻔한 국내 PC온라인 게임의 건재를 과시했다.

로스트아크 개발을 총괄한 지원길 대표는 수상의 성과를 구성원들에게 돌렸다. 그는 “로스트아크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

간 함께 동고동락한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게임 대상 수상이 바쁜 업데이트 일정 속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트아크 서비스 1주년이 됐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외 글로벌에서 보여드릴 것들이 너무 많고 스마일게이트 RPG 구성원들과 함께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로스트아크는 지난해 11월 국내 시장에 출시한 PC온라인 게임이다. 출시 초반 폭발적인 인기로 합입어 게임 접속 대기 인원이 1만~2만 명을 넘어 접속 대기 시간만 수시간에 달했다. 일부 유저들은 로그인 대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 다양한 에피소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지원길 대표는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줬고 서버에 대기열이 발생했을 때 서버를 증설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원길 스마일게이트RPG 대표가 ‘2019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로스트아크로 대상을 받은 뒤 활짝 웃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서버를 증설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에도 높은 대기열 숫자를 보면서 로스트아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기다려주는 유저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커 속이 타들어갔던 기억이 생각난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초반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현재는 다소 인기가 시들해진 상태다. 하지만 지원길 대표는 PC방 점유율에 연연하기보다 실제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하고 꾸준히 내실을 다질 예정”이라며 “e스포츠 및 소셜 등의 콘텐츠 확장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게임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PC온라인 게임 시장에 대한 생각도 털어냈다. 지원길 대표는 “PC 온라인 게임의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이지만, 최근 모바일 게임의 강세로 게임사들이 오랜 개발 기간과 대규모 투자 때문에 PC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개발을 고민하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점이 많다”며 “하지만 대규모 스케일의 연출을 기반으로 한 컨트롤의 즐거움과 몰입감 등 PC 온라인 게임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유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라며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최선목 한화 커뮤니케이션팀 사장 한국PR협회 ‘올해의 PR인’ 선정

최선목 한화 커뮤니케이션팀 사장(사장)이 ‘2019 올해의 PR인’에 선정됐다.



한국PR협회는 14일 한국PR학회와 한국PR 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구성된 ‘올해의 PR인상 선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한화 교향악 축제와 불꽃 축제를 기획했다. 음악과 축제를 통해 기업과 국민 간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태양광 사업과 CSR를 접목한 ‘한화 태양의 숲, 한화 해피 선샤인’ 사업을 중국에서 펼쳤다. 그밖에 ‘한화솔라보트로 운영되는 클린업 메콩’을 베트남까지 확대 시행하고, 한화그룹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 협력을 통한 국위 선양에도 이바지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한국PR협회 측은 밝혔다.

‘2019 한국PR대상’ 대상으로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의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 ‘다들어줄게’가 선정됐다.

한편 2019 한국PR대상 시상식은 21일 오후 6시 30분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날 한국PR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사이영상은 놓쳤지만...

뽀 출신 첫 1위표 획득
류현진, 디그림에 밀려 2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서 단독 2위에 오른 LA다저스의 류현진과 아내 배지현 전 아내윤씨가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괴물’ 류현진(32·LA 다저스)이 사이영상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아시아 출신 투수로는 최초로 1위 표를 받아서다.

류현진은 14일(한국시간)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가 발표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발표에서 1위 표 1장, 2위 표 10장, 3위 표 8장, 4위 표 7장, 5위 표 3장(88점)을 얻어 단독 2위에 올랐다. 애초 BBWAA는 류현진을 공동 2위로 발표했지만, 집계 오류를 바로잡아 단독 2위로 재차 발표했다.

사이영상은 제이콥 디그림(뉴욕 메츠)에게 돌아갔다. 1위 표 29장, 2위 표 1장으로 207점을 기록했다. 제이콥 디그림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이영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시아 선수 중 사이영상 투표에서 1위 표를 얻은 선수는 류현진이 처음이다. 노모 히데오(일본), 왕젠밍(대만), 마쓰자카 다이스케, 다르빗슈 유, 이와쿠마 하사시(이상 일본) 등 우수한 아시아 출신 투수들이 도전했지만, 1위 표를 받지는 못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효성, 창업주 만우 조흥제 회장 함안 생가 상시 개방

효성은 14일 경상남도 함안군과 함께 창업주 고(故) 만우 조흥제(사진) 회장의 생가 개방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을 비롯해 함안 향우회, 조근제 군수 등 함안군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조현준 회장은 “생가를 복원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경남도, 함안군, 그리고 향우회에 감사하다”며 “국가와 민족을 밝히는 ‘동방명성(東方明星: 등불)’이 되자는 할아버님의 이상을 실천해 효성이 세계를 향해 더욱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



만우 조흥제 회장은 함안군 북면 동촌리에 있다. 문화유산 보호단체 아름지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원공사를 했다. 대지면적은 총 1225평으로, 조선 후기 한옥의 형태다. 효성은 앞으로 만우 생가를 상시 개방한다.

만우 회장은 1962년 효성물산을 시작으로 1966년 동양나이론을 설립했다. 1971년 민간기업으로는 국내 최초 부설 연구소인 효성기술원을 세워 효성의 토대를 마련

했다”고 밝혔다.

만우 생가는 함안군 북면 동촌리에 있다. 문화유산 보호단체 아름지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원공사를 했다.

대지면적은 총 1225평으로, 조선 후기 한옥의 형태다. 효성은 앞으로 만우 생가를 상시 개방한다.

만우 회장은 1962년 효성물산을 시작으로 1966년 동양나이론을 설립했다. 1971년 민간기업으로는 국내 최초 부설 연구소인 효성기술원을 세워 효성의 토대를 마련



왼쪽부터 안병준 함안 향우회장, 조현식 한국타이어 부회장, 박용순 함안군 의회 의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근제 함안군수, 조필재 대중회 명예회장,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

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선진화와 수출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 등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기도 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안영균 한공회 상근연구부회장 세계회계사연맹 이사로 선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안영균 상근연구부회장이 13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회계사연맹 대표자 회의에서 세계회계사연맹 이사(Board)로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안영균 부회장은 삼일회계법인과 PwC 토론토 오피스 등에서 30여 년 동안 회계 감사 경력을 쌓아 온 회계전문가다. 2014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감사, 세무 분야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안영균 부회장은 삼일회계법인과 PwC 토론토 오피스 등에서 30여 년 동안 회계 감사 경력을 쌓아 온 회계전문가다. 2014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감사, 세무 분야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에스원, 교정시설 청소년에 15년째 ‘희망장학금’

종합 안심술루션 기업 에스원은 소년원생에게 15년간 희망장학금을 전달하며 청소년의 꿈을 소중히 지켜주고 있다. 희망장학금은 교정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자활 의지를 높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14일에는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에서 제15회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희망장학금’은 에스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매년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학생 중 자활 의지가 높은 18명의 모범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한다. 모범학생들은 월 20만 원씩, 연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희망장학금은 에스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희망펀드 모금액과 회사의 지원금을 더해 조성된다. 에스원은 2005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200여 명의 교정보호시설 청소년에게 모두 4억5000여만 원의 희망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박준성 전무는 “에스원 임직원들이 모은 장학금이 꿈에 도전하는 학생

상 = 13일,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30분, 031-810-5444

▲이점순 씨 별세, 홍순영 씨 부인상, 홍은표(대법원 재판연구원)·은희 씨 모친상 = 1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6일 오전 11시 30분, 02-2258-5940

▲김형임 씨 별세, 하정호(전 남양유업 부부장)·원호(JTV 전주방송 기자)·기정(시인) 씨 모친상, 한주연(KBS 전주총국 기자) 씨 시모상 = 14일,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실, 발인 16일 오전 9시 30분, 063-250-2441

▲강쌍금 씨 별세, 오계환·영환(중앙일



왼쪽부터 이용호 안양소년원 원장, 송종일 법무부 소년과 서기관, 박준성 에스원 전무, 권영호 춘천소년원 원장.

들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에스원은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보플러스 지역전문기자) 씨 모친상 = 14일, 상주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오전, 054-536-8104

▲김용희 씨 별세, 김정숙·원식(자영업)·홍식(한국 캘러웨이 골프 전문이사) 씨 부친상, 김상열 씨 장인상, 정순주·권미약 씨 시부상 = 1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6일, 02-3010-2263

▲신수은 씨 별세, 신태완(전 건강보험공단 과장)·태욱(에스비씨 상무이사)·성호(한전KPS 실장)·성희(일산소방서 소방경) 씨 부친상, 양미승(서울중앙고 교사) 씨 장인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1호실, 발인 15일 오전 10시, 02-3010-2231

게시판

신용보증기금, 박창규 신임 상임이사

신용보증기금은 신임 상임이사에 박창규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창규 신임 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남북협력팀장, 비상안전기획관실 비상안전기획팀장,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박 상임이사의 임기는 2021년 11월 13일까지 2년이다.



대한전기학회 회장 김철환 성균관대 교수

김철환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제 50대 대한전기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교수는 2021년부터 회장직을 맡는다. 임기는 1년이다.



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양동엽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전 주핀란드 대사

3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은 현상 유지도 못하고 뒷걸음질을 쳐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사정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어렵다. 지금의 형국으로 봐서는 오히려 미국이 일을 더 그르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다. 이 시점에서 다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본다.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 없이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다.

2018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한 이후로 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들이 나타났다. 김정은의 피붙이이며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진 김여정이 서울과 평창을 휘젓고 다니면서 희망의 눈바람을 일으켰다.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남북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있을 법하지 않던 장면도 보였다. 급기야는 싱가포르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하노이에서 주춤하는가 싶더니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영역으로 넘어갔다 오고 김정은과 5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 사이에 존경과 애정이 어린 편지도 여러 번 오갔다.

이런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진 후 우리가 본 마지막 장면은 10월 5일 북미 실무 회담 북측 대표인 김명길의 스톱홀름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서 동료가 들고 있는 손전등빛 아래서 엄숙한 표정으로 성명문을 읽는 것이었다. 그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귀를 의심케 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된 상태에서 사는 나라는 없다. 거기다가 '발전'까지 추가했다. 안전뿐 아니라 발전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게 진정 북한이 내세우는 조건이라면 협상을 통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다. 그렇다면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말한 '좋은 소식'이란 무슨 말이었을까.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은 유동적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공화당 의원들이 그를 버릴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 대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야당 북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는 데다 선두권에 있는 대선 후보들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인물이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에 북한은 꽤 느긋해 보인다. 지난 6월 이란이 미국의 정찰기를 격추시켰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고 북한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 때문에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정도 나쁘지 않다. 중국과의 관계도 잘 다져놓아서 급하면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급한 쪽은 성과에 목마른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북한은 배짱을 부리고 미국은 조르는 듯한 징후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내에는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엄격한 비핵화 조건을 잡고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정도로 타협함으로써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나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이 전전되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 상황도 가능하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체 목록은 제쳐두고 영변 핵시설만을 폐기한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주면 나머지 핵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고 비핵화는 영영 물거품이 된다.

요즘 이란 핵 합의에 계속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란 핵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졌다. 물리력을 쓰지 않고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본 것이다. 이란 핵 문제의 원인은 1979년 이란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혁명으로 이란에 신정 체제가 들어섰다. 그 후 몰라(이슬람교의 법과 교리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은 이란 국민들의 동의 절차 없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주권재민의 원칙을 어긴 독재 정부이다. 독재정부는 영원한 정통성 위기를 겪게 되어 있고 이를 뚫기 위해 끊임없이 위기를 재생산해내야 한다. 핵 개발 게임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북한의 핵 개발도 이와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 3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은 현상 유지도 못하고 뒷걸음질을 쳐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사정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어렵다. 지금의 형국으로 봐서는 오히려 미국이 일을 더 그르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다. 이 시점에서 다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본다.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 없이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국제사회는 북한의 체제 변화를 시도할 의사뿐 아니라 능력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원미숙의 참견

동국대 신소재공학부 초빙교수

불 꺼진 연구실, 주 52시간제도 좋지만...

이투데이, 말투데이

1980년대 초 필자가 연구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던 당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600달러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고,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이 활성화되었던 시기로 나의 전공이었던 화학분야 대학 졸업자는 일자리가 넘쳐나던 때로 기억된다. 취업이 잘된 탓인지 생활이 어려웠던 탓인지 굳이 어려운 공부를 더 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 필자가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화학과에는 신입생이 두 명뿐이었다. 처음 대학원에서 연구를 시작했을 때에는 눈을 뜨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 늘 활기찬 발걸음으로 연구실에 출근했다.

정부가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노동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고 26개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도 1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공문이 통지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연구현장에서는 근무(연구) 시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연구자들을 흔하게 만나게 된다. 연구에 몰두하다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일단 퇴근카드를 찍고 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하던 연구를 계속하는 우습지도 않은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주도로 노벨상을 목표로 하는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아무 거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다.

연구현장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적어도 지속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에 있어서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하겠다는 연구자를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정책이 오히려 연구

자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특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물론 근로시간을 줄여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지는 주 52시간제는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아무리 선의로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6개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업을 제외시킨 것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업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 적용, 통제와 감독으로 과연 경쟁력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절치 못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연구현장의 자율성 보장을 주장했던 정부가 말하는 자율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필자가 정부출연연구소에 근무하던 당시, 한때 불 꺼진 연구현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정시 퇴근 연구자들이 팬스레 죄스러움을 느껴야 했던 기억이 난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현장에서는 특성상 시간을 조정하면서 할 수 있는 연구도 있으나, 초전도자석을 만든다는 생체실험을 한다든가 여러 날 밤을 새워가며 진행해야 하는 연구도 있다. 물론 인력이 풍부하다면 지속성이 필요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교대근무제를 활용함으로써 주 52시간 근무 규정을 지킬 수도 있겠지만, 인력 등 소프트웨어 투자에 인색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인재는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고,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의 말에 적극 공감하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은 재고되어야 한다.

서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지만, 예어부산(44%)과 아시아나HDT(76%)는 그렇지 않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잔여 지분을 공개 매수하거나 이들 계열사를 다시 매각해야 한다. 항공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회사를 처분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이 과정이 항공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항공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몽규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새 주인을 만난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요하네스 케플러 명언 "외부 세계를 탐구하는 주된 목적은 하느님이 세우시고 수학의 언어로 우리에게 제시한 합리적 질서와 조화를 발견해내는 것이어야 한다."

독일의 천문학자. 행성이 일정하게 도는 길인 궤도 모양이 원일 거라는 기존의 학설을 뒤엎고 타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궤도의 법칙', '면적의 법칙' 등 행성의 움직임과 관련한 법칙들을 밝힘으로써 지구와 행성이 태양을 도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571~1630.

☆ 교사성어 / 반면교사(反面教師) 스승은 스승인데 반대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 즉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가리키는 말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毛澤東)이 처음 사용했다. 그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개선할 때, 그 부정적인 것을 반면교사라 말했다.

☆ 시사상식 / 미니멀 라이프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과 등을 줄여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단순한 생활방식. 물건을 적게 소유하면서 생활이 단순해지고 이후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면서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한다.

☆ 유머 / 내조 여자에게 살짝 뿌리지만 하면 바로 흥분하는 약을 파는 약국에 바람둥이가 그 약을 사러 갔다. 약사 아내가 약을 건네주자마자 남자가 엉금엉금 마음에 약을 그녀에게 뿌렸다. 약사 아내가 바로 눈을 게슴츠레 뜨고 가쁜 숨을 쉬면서 그를 끌고 들어갔다.

마침 외출했다 돌아온 약사가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나 아내에게 "웬 지랄이야"라고 소리치자 그 부인의 대답. "내가 아무 반응 없이 있어 봐요. 당신이 조제한 약이 가짜라는 게 들통 날 거 아니에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가(家)를 떠나 30년 만에 새 주인을 만났다. 정몽규 HDC 회장은 본입찰 당시 경쟁사였던 애경그룹보다 인수 금액을 7000억 원가량 높게 써내며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결국 국내 2위 국적 항공사를 품에 안았다.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먼저 호텔, 면세점, 레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HDC가 항공업까지 진출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HDC는 2005년에 파크하얏트서울을 개점해 호텔업에 진출했고 2015년 호텔신라와 손잡고 면세점 시장에 뛰어들었다. 올해 6월에는 한솔그룹의 오코밸리 리조트를 인수해 레저사업에도 발을 들였다. 이번 아

기자수첩 김기송 산업부/kissong@ [Portrait of Kim Ki-sung]

HDC아시아나를 보는 기대와 우려

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항공-면세점-호텔의 3축이 완성됐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우려의 시선은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9조6000억 원에 달한다. 부채비율은 660%다. 향후 실사 과정에서 추가로 우발채무가 나올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HDC

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승자의 저주'라고 내다봤고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이를 연속 하락했다.

구조조정 문제도 뒤따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예

이슈&인물

‘현재진행형’ 키코 악몽

조봉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

“DLF·라임사태도 금융탐욕이 낳은 비극”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는 2008년 지나가던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에 큰 손실을 안겨준 악몽 같은 사건이다. 11년이 지났지만, 키코 악몽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당시 900여 개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고, 손실액만 3조 원이 넘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없었다. 100여 개의 키코 피해 기업들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5년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다”고 확정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잊히는 듯했던 키코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이 키코를 ‘금융 3대 적폐’로 지목하면서다. 당시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키코 재조사와 피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키코 재조사는 지난해 5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맡았던 윤석현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속도를 냈다. 윤 원장은 취임 후 분쟁조정2국 내에 ‘키코 분쟁조정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키코 공대위를 만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과 분쟁 조정을 약속했다. 키코 공대위는 피해 입증이 가능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 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4일 이투데이와 만난 조봉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은 키코 사태를 금융의 ‘탐욕이 낳은 비극’으로 정의했다. 그는 “금융이 탐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키코는 물론 최근에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라임 사태 같은 문제도 이 탐욕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키코 사태의 진실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개인으로까지 퍼진 것”이라고 했다.

키코는 2007년부터 국내 은행들이 수출 위주의 중소기업들에 판매하기 시작한 환헤지 통화 옵션 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여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환율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게 될 때가 문제였다. 만약 만기 이전에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기업들은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외화를 마련해 은행에 약정 환율로 팔아야 했다. 만약 환율이 정해진 범위 밑으로 떨어진다면 키코 계약은 무효가 된다. 키코는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파생상품이었지만 당시 은행들은 이 상품을 중소기업들에 ‘환헤지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유했다.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했던 중소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말에 키코 상품에 대거 가입했다. 손실 가능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수출 기업들은 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은행에서 키코 상품에 가입하면 다른 은행들도 잇달아 찾아와 키코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기업들이 외화 매출액의 2배가 넘어서는 규모(오버헤지)의 계약을 체결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2008년 은행들은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상품을 판매했지만, 미국발 금융 위기의 여파로 원



14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만난 조봉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은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보상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11년간 이어온 키코 사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손실 가능성 높은 파생상품을 환헤지상품이라며 가입 권유

외화 매출액 2배 넘는 계약도

피해입증 가능 4곳 분쟁조정 이르면 다음주 보상안 나올 듯 일부 언론 “20~30%” 보도…

사실상 사기…전액 보상해야

소수 금융인 독점·왜곡된 구조

한번 신뢰 잃은 금융사는

시장에 존재할 수 없게 해야

·달리 환율이 급격히 치솟았다. 탄탄한 수출 중소기업이 쓰러졌고 피해 기업만 919개, 손실액은 3조1588억 원에 달했다.

그는 “외환 파생상품인 키코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망하게 했고, 결국 환헤지 시장 자체가 사라졌다. 금융에 종사하던 최고급 두뇌들의 일자리도 없어지면서 양쪽 모두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며 “금융 탐욕이 확대 재생산된 결과 DLF·라임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피해는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금감원 분조위가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에 더해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 분쟁 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이 150곳에 달하는 만큼 이들 기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조 위원장은 “4개 회사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기업들은 은행과 자율조정에 나서게 된다”며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공대위는 은행과 피해기업의 개별협상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문제는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50여 개 기업에 대해서 주인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실제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가 주장하는 보상 범위는 피해받은 금액 전부다. 키코가 사실상 ‘금융 사기’였던 만큼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피해보상 20~30% 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위원장은 “피해보상 비율이 20~30%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은행들의 회망 사항일 뿐”이라며 “피해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자금을 모두 지원해줘야 하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보상 외에 금융당국의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바람직한 방향은 금융당국이 공동기금을 하거나 재기지원자금 형식으로 지원해주거나 수출보증이나 개인이 지고 있는 연대보증 채권을 저가에 매입해 소각시켜 주는 방안도 키코 사태를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키코 사태로 조 위원장이 운영하던 코막중공업은 10의 1로 회사 규모가 줄었다. 그는 “키코로 피해를 본 대부분의 기업들이 망하거나 사세가 기울었다”며 “수출중견기업이 사라지면서 경제 허리가 끊어졌고,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경제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우려했다. 그는 키코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우리 금융당국의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키코 사태를 보면서 금융에 대한 국가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며 “개인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0.01% 소수의 금융인들이 부를 독점하고 훨씬 더 왜곡된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면서 “금융의 속성이 탐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신뢰를 한 번 잃은 금융사는 시장에서 존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범근 기자 nova@

사설

기업인들 ‘교도소 담장 위 걷는 처지’인 현실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되면 경제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이 무려 220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개인의 잘못으로도 기업과 기업인이 함께 처벌받는 양벌(兩罰) 규정의 종류가 그렇다. ‘항상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처지’라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285개 경제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다.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로 20년 전인 1999년(1868개)에 비해 42%나 늘었다. 이 중 83%인 2205개가 법 위반을 저지른 피고용인뿐 아니라, 고용주인 기업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돼 있다. 또 전체의 86%인 2288개 항목이 강도 높은 징역 또는 벌금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양벌 규정은 피고용인의 법 위반을 방지할 책임을 고용주와 법인에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CEO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 건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종업원 개개인의 부주나 위법행위를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경영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종업원 범죄로 최악의 경우 CEO가 인신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상 종업원의 법정근로시간 및 임신부 보호 위반, 성차별 등까지 고용주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올해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피해자가 불이익

을 당한 기업의 대표를 처벌하는 조항도 그렇다. 공정거래법에는 직원이 실수로 공시정보를 누락해도 대표이사 처벌받게 돼 있다. 실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기소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 발생시 현장 훼손이나 작업 중지 규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또한 기업과 기업인까지 처벌 대상이다. 다른 사례 수없이 많다.

통상적 경영판단과 무관하고, 직접적인 위법도 아닌 사안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런 식의 지나친 양벌 규정이 늘면서 CEO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처벌받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리스크로 이 같은 양벌 규정을 꼽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제도가 경영을 제약하면서 기업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과 투자 의욕을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 완화와 거꾸로 가는 것이고, 외국의 비슷한 법령과 비교해도 너무 엄격한 것으로 지적된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와 단순화가 시급하다. 직접적 경영행위와 무관한 일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만을 능사로 삼는 것은 기업인들을 모두에 비 범죄자로 내몰아 ‘법률 리스크’만 키우는 꼴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워지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 킷



자동차(가 다니기 안 좋은)길

서울 남산을 수많은 노선버스와 관광버스가 매일 오간 탓에 정상 인근의 도로가 파이고 갈라지는 등 파손돼 있다. 대형 차량이 울퉁파인 도로를 지나다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남산서울타워 등이 위치한 남산 정상은 연간 1200여만 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안전과 미관 향상을 위해 도로보수공사가 시급히 필요하다.

신태현 기자 holijak@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아이들은 즐겁게! 엄마 아빠는 맘 편히!!

KB가 함께 돌봄네다

아이는 돌봄교실에서 꿈을 키우고
엄마 아빠도 걱정 없이 일터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돌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KB의 더 나은 세상 만들기

QR코드를 스캔하고
돌봄교실 광고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KB금융그룹이 돌봄 공백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 1,600여 개 초등학교에서 5만여 명의 아이들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2,500개의 돌봄교실 및 병설 유치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KB 금융그룹